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인민의 보금자리

주체112(2023)년

차 례

머 리 말

보금자리, 이 네 글자를 뇌이느라면 누구나 따스하고 아늑한 감, 부드럽고 편안한감을 느끼며 마음은 마냥 후더워지고 즐거워진다.

그것은 보금자리가 사람들이 근심걱정없이 보람있게 살수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기때문일것이다.

보금자리는 사람들의 귀중한 희망과 꿈과 소원이 뿌리를 내리고 커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금자리인 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한칸짜리 자기의 집도 없어 세방살이를 하거나 그것마저도 이룰수 없어 천막과 같은 집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 한지에서 떠돌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면 좋은 집,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살아보고싶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풀수 없는것인지…

아니다. 그 소원은 풀수 있다.

사회주의조선인민은 누구나 그 소원을 성취하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제기하고 해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인민들에게 보다 더 훌륭한 집,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것이 숙원이라고 하시며 이 사업을 중시하신다.

령도자의 숙원은 곧 조선로동당의 숙원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문제들을 중요회의들에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준다. 하여 조선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서나 날에날마다 새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오늘의 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보고 들을수 있는 새 소식들중에서 제일 많은 몫을 차지하는것은 새집들이 소식일것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궁궐같은 새집들을 련이어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준다.

사회주의조선의 지도에 지난 10여년간 새로 생겨난 거리와 마을들을 새겨놓는다면 아마도 인민의 보금자리로 가득찬 새 조선을 보게 될것이다.

그 보금자리들에는 로동자, 농민,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희한한 살림집들과 합숙들, 돌볼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위한 궁궐같은 양로원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궁전같은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은 세대들에 새로 안겨준 훌륭한 살림집들이 있다.

그 모든 보금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그마한 책에 다는 담을수 없어 도시와 농촌, 피해지역들에 새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들중에서 몇곳을 찾아 소개하려고 한다.

1.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일떠선 삼지연시

먼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일떠선 삼지연시에 대하여 전하려고 한다.

삼지연시는 백두산아래 첫 동네이다.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주체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주체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다.

삼지연, 이 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유서깊은 성지이며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와 함께 삼지연시를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있으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인 삼지연시를 찾고 또 찾는다.

삼지연시를 더 잘 꾸리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 소원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풀어주시였다.

《삼지연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위대한 발기자, 위대한 설계가, 위대한 시공주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십니다. 매일 보아온 우리들조차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 이 희한한 인민의 리상향은 **김정은**동지의 남다른 정과 고심과 로고가 응축된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삼지연시전변의 증견자들인 건설자들이 두고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 삼지연시의 전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삼지연시를 인민의 념원을 담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뿐 아니라 전국의 본보기, 문명한 산간도시로 꾸릴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1) 령도자의 심혈과 로고속에 전변된 삼지연시

주체102(2013)년 11월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삼지연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리지 않으시고 백두산기슭을 찾고찾으시며 삼지연시를 새로 꾸리기에 앞서 인민의 소원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고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현대적인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달리 사랑하신 봇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11월 삼지연시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몇번이나 멈추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격정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후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읍지구를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완공하는 사업, 삼지연시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삼지연시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선 삼지연시대상공사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삼지연시를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는 립장에서 꾸려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에서부터 지역적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대상의 용도에 맞으며 류사성과 반복을 없애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백두전구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건설자들은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곳곳에 블로크생산장, 인조대리석생산기지 등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공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색블로크와 각종 경계석을 비롯한 질좋은 건재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일떠서는 삼지연시의 전기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103(2014)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70돐까지 공사를 완공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자재보장대책도 세워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104(2015)년 9월 13일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고 이곳에서 군민청년대합창을 하늘땅이 들썩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꼭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1호발전소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군(당시)까지의 송전선건설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작전을 펼치시고 공사를 힘있게 진척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삼지연 송전선공사가 완공되게 되고 백두산영웅청년 1, 2호발전소를 련결하는 송전선공사도 끝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돌격대원들은 힘찬 투쟁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00여일 남짓한 기간에만도 4개의 철다리를 완성하고 차굴도갱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106(2017)년 1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삼지연땅을 찾으시여 삼지연시꾸리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이 솟아있는 력사의 땅 삼지연시, 조선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은 여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가 눈부시게 일떠서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주체110(2021)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단계건설을 끝낸 삼지연시를 돌아보시였다.

포태동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에 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태동지구건설이 잘되였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며 오늘의 이 희한한 모습, 천지개벽된 현실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격정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삼지연시는 오늘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시, 표준시, 모범시로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찾고찾으시며 로고를 바쳐가시던 나날에 이 땅에는 수많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이 지면에 담는다.

☆ 축복받은 세쌍둥이자매

주체108(2019)년 4월 3일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 평양에서 이곳 삼지연시로 탄원해온 세쌍둥이자매의 집을 찾아주시였다.

현관앞에서 삼가 인사를 드리는 세쌍둥이자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어디에서 살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으며 집에 들어서시여서는 부엌세간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쌍둥이자매가 새집들이를 한 집이 정말 좋다고 하니 자신의 마음도 기쁘다고, 자신께서 보기에도 집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평양사람들가운데도 이만한 집을 쓰고사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삼지연시에 탄원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사실 이들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평양을 떠나 삼지연군에 뿌리를 내릴 결심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이들은 평양산원에서 153번째로 태여난 세쌍둥이들이다. 세쌍둥이들이 태여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금반지와 은장도를 비롯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선물을 안겨주시고 온갖 사랑을 기울여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긴 그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났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세쌍둥이의 부모는 받아안은 은혜에 충실히 보답하라는 의미를 담아 딸들의 이름을 장은혜, 장충실, 장보답이라고 지었다.

온 나라 인민이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 비보에 접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목메여 찾고찾던 12월의 그 나날에 세쌍둥이는 충성과 보답의 의미를 사무치게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101(2012)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게 되였다.

이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사업, 삼지연시꾸리기 등 중요공사들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우는 나날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높은 국가수훈도 받아안게 되였으며 둘째 장충실은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세쌍둥이자매는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만발하게 피워가는데 이바지할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삼지연군에 뿌리내리게 되였던것이다.

이들이 삼지연군에 탄원하게 된 사연을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살던 동무들이 여기 삼지연땅에 영원히 뿌리내린것은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충성심을 간직한 우리 청년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훌륭한 미덕, 미풍을 보여주었다고, 정말 그 마음이 고상하고 갸륵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무들의 결심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린 결심이라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이상 한번 다진 결심을 끝까지 변치말고 지켜나가며 삼지연군 인민들과 함께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충성의 구슬땀을 바쳐야 한다고, 동무들이 꼭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하시며 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할것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동무들 세 자매가 모두 시집을 가면 자신께 편지를 써야 하겠다고 살뜰한 정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자매의 집을 찾아주신 그때부터 온 나라 인민은 마치 자기 딸, 자기 누이, 자기 동생이 받아안은 영광이기라도 한듯 세쌍둥이가 언제 결혼식을 하며 그날에는 또 어떤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이 꽃펴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들먹이며 행복한 새 가정이 태여날 시각을 기다려왔다.

삼지연땅에 훌륭한 처녀들이 있다는 소식에 접하고 누구보다 가슴이 설레인 사람들은 다름아닌 총각들이였다.

비록 한번 본적도, 이야기를 나눈적도 없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나주시고 시대앞에 내세우신 처녀들이면 그만이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고 하면서 누구는 편지로, 누구는 전화로, 누구는 한달음에 달려와 세쌍둥이처녀들에게 진정을 터놓았다.

평양시의 일군들은 물론 삼지연군과 량강도당위원회 일군들도 세쌍둥이처녀들의 배필을 정하는것을 하나의 중대사로 여기고 훌륭한 대상자들을 겨끔내기로 내세웠다.

그러던중에 맏이 장은혜에게는 제대군인총각이, 둘째 장충실에게는 조선인민군 군관이, 막내 장보답에게는 대학박사원생청년이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속에 총각들과 사랑의 약속을 터놓은 그날에 세쌍둥이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린 편지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첫째 대상자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라선시에서 삼지연으로 탄원하여 시당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사실이며 둘째 대상자는 **김일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군부대에서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복무하고있는 사실과 셋째 대상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나라일을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쌍둥이자매의 편지를 보아주시였으며 결혼식을 위해 특별비행기를 띄워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으며 세쌍둥이는 감격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 시각 수도 평양과 세쌍둥이의 일생의 길동무가 될 총각들의 고향에서도 자식들을 찾아 삼지연시로 떠나는 부모의 려장도 차려주고 지성어린 결혼기념품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화창한 봄날 세쌍둥이는 삼지연시의 은정식당에서 뜻깊은 결혼식을 하였다.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린 이 감격의 목소리는 비단 세쌍둥이의 심장의 목소리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그리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는 삼지연시인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결혼을 한 세쌍둥이 자매는 삼지연시에 새로 건설된 행복의 보금자리들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2) 일심단결의 위력이 떠올린 사회주의리상촌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당중앙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안아온 거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나가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충성심의 산물이다.

조선로동당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변모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였을 때 온 나라는 크나큰 감격과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며 이 사업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삼지연시 건설은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더욱 굳게 잇는 영예로운 사업이였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는 보람찬 사업이였다. 조선인민이 삼지연시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난것은 바로 이때문이였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한 실천행동으로 받들어나가는 대중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조선인민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삼지연시건설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속에는 온 집안이 모두 백두전구로 달려온 가족도 있었고 부부와 부자, 부녀, 모자와 모녀, 쌍둥이와 자매들도 있었다. 건설자들만이 아닌 조선인민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을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아낌없이 바쳤다.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전민이 일시에 떨쳐나 투쟁하였기에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 남들같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참으로 삼지연시의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인민의 불같은 충성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만 펼쳐놓을수 있는것이였다.

엄혹한 추위와 불리한 공사조건을 이겨내며 순간도 멈춤없이 건설사업을 벌려온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온 나라에 고조된 삼지연시건설지원열기는 인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투철하며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령하 수십℃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건설자들은 순간의 주저도 없이 건설물들을 일떠세웠다. 모래와 돌마저 귀하고 때로는 물까지 없어 눈을 녹여가며 혼합물을 이겨야 했던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힘있게 전진하여 단 몇해사이에 누구나 부러워할 천지개벽을 안아온 비결은 일심단결에 있는것이다.

참으로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 반영된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삼지연시에 천지개벽을 안아온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의 방방곡곡에 삼지연시와 같은 천지개벽을 안아올려 인민의 리상적인 보금자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다.

3) 새집들이 경사

행복의 보금자리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삼지연시에서는 련이어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여기에 경사스러운 새집들이소식의 한대목을 싣는다.

주체109(2020)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살림집입사모임소식이다.

이 시기 삼지연시의 10여개 동, 리에 수천세대의 살림집이 희한하게 일떠섰다.

삼지연시

모든것이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지고 안팎으로 멋들어진 다층,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산간지대특유의 풍치를 돋구며 한폭의 그림같이 황홀경을 펼친 마을들에서는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삼지연시인민들의 감격과 기쁨이 한껏 넘쳐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된 살림집입사모임들이 백두산밀영동, 무두봉동, 리명수동, 포태동, 5호물동동, 중흥리, 홍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격정과 열광의 박수속에 수여되였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되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일군들이 새 집을 받은 가정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주민들모두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울고웃으며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삼지연시의 새집들이경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러면 이 지면에서 새집들이한 삼지연시 주민들의 이야기와 새집들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화들을 간단히 들어보기로 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우리 집입니다.》

삼지연시의 중흥농장마을에 사는 제3작업반 분조장 서철민동무의 집 출입문우에는 하얀 눈세계속에서 류달리 붉은 빛을 뿌리는 현판이 정히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0(2021)년 11월 15일 다녀가신 살림집》,

현판을 보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우리 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집,

누구나 평범한 생활속에서 흔히 하는 말이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정깊은 부름이다. 하지만 머나먼 북방농장의 평범한 제대군인

분조장이 그토록 긍지에 넘쳐 세상에 대고 웨치는 《우리 집》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이 그토록 큰것은 바로 그 집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있기때문이다.

백두산기슭에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을 펼쳐주시고 문명하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그들가정의 행복과 복리를 따뜻이 축복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버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에 겨워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기에 서철민동무의 부부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독차지한 우리 집이라고 그리도 행복에 젖어 격정을 터뜨리는것이다.

❖《백두산아래에 우리 집이 있다》

이것은 삼지연시인민들 누구나가 하는 말이다.

삼지연시인민들이 터치는 이 목소리에는 천만복을 받아안으며 사는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려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삼지연시 무두봉동에서 보면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어울려 백두산이 더욱 숭엄하게 보인다. 전체 인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마을에서 산다는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가장 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어려서부터 무두봉동에서 살아온 최광숙녀성은 자기가 이곳에서 살면서 다섯번째로 새집들이를 하였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였다.

처음 이 고장에 림산마을이 생겨났을 때 림산로동자였던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새 집에 들어서며 좋아라 뛰여다니던 일이 지금도 그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세월이 흘러 그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마을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을 받아 또 이사를 했다. 그런데 새 집을 받아안은지 얼마 안되여 그의 가정은 또다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 집에서 그는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후 그는 나라에서 새집처럼 보수해준 살림집에 입사를 하게 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당의 사랑속에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새 집의 주인이 되였던것이다.

벌써 몇번이나 도시에서 사는 딸이 함께 살자고 하였지만 그는 매번 거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고장에서 산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없이 소중해서였다.

그날 그는 가족과 함께 백두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새 집을 받아안은 날을 영원히 기억해두고싶었던것이다.

그들뿐이 아니라 무두봉동의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따뜻합니다!》

삼지연시는 조선에서 제일 추운 고장으로 알려져있다. 오랜 세월 모진 추위로 하여 이 고장 사람들이 겪는 생활상애로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삼지연시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면서 그것은 아득한 옛일로 되였다.

새 보금자리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다.

《따뜻합니다!》

새 집에 주인들이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방마다 구들이 따뜻이 덥혀져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새 집의 주인들은 말한다.

《흔히 새 집에서 나는 첫해 겨울은 춥기가 일쑤라고 말하군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새집들이를 한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추운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새집들이를 한지도 벌써 여러날이 흐른 때에도 이곳 사람들은 이처럼 훌륭한 곳이 자기 집이라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삼지연시 포태동에서 새 집을 받은 김성만로인도 그러했다. 새집들이후 첫 밤을 뜨뜻하게 보낸 그는 이 고장에서 살아온 한생이 불현듯 돌이켜졌다.

그가 이곳을 개간한 첫 개척자들중의 한 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몇채의 살림집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일떠서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눈뿌리 아득히 펼쳐졌으니 그 모든 전변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온 로인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포태동의 살림집들에서는 때때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런 목소리가 울리군 하였다.

《방안은 따뜻합니까? 부엌에 물이 잘 나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새 집에 혹 불비한 점이 있을세라 마음을 쓰는 건설자들의 목소리였다.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주민들에게 포태건설려단의 한 지휘관은 뜨거움에 젖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주민들을 입사시키도록 할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그 하늘같은 사랑속에 오늘의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진것이고 우리들은 당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할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살피심속에 사는 조선인민모두의 마음은 언제나 밝고 따뜻하다.

❖ 새로 생겨난 저녁일과

새 살림집에 입사한 삼지연시의 그 어느 가정에나 새로 생겨난 저녁일과가 있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친척, 친우들에게 전화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시에 대해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안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대해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0(2021)년 11월 또다시 다녀가신 삼지연시 중흥리에서 살고있는 중흥고급중학교 교원 김순희동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저녁이면 여러 지방에서 살고있는 친척들과 친우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새 집자랑에 성수가 나군 한다.

방이 넓고 해빛이 잘 든다. 전기난방으로도 되여있고 온돌로도 되여있는 방들은 항상 따뜻하다. 부엌은 또 얼마나 마음에 꼭 드는지. 우리 산골사람들도 이제는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였다. …

삼지연시의 새집들이소식을 전해듣고 축하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도 일일이 새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라면 당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와 눈굽이 젖어오르고 더 많은 일을 하여 보답하겠다는 말로 전화를 끝내는것이 례상사였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만복을 받아안은 삼지연시인민들의 긍지와 행복은 이렇듯 새로 생겨난 저녁일과에도 비껴있다.

❖ 군복입은 자식들의 행복한 걱정

새 집에 입사한 삼지연시 포태동에서 살고있는 강금룡, 윤영실부부는 세통의 편지를 받았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아들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쁨속에 바라보신 고향의 모습을 신문과 TV화면에서 보고 보내온 편지들이였다.

1년전에 인민군대에 입대한 막내아들은 짧은 기간에 도시부럽지 않은 선경거리, 선경마을이 일떠선것이 놀랍고 꿈을 꾸는것만같다고 하면서 편지에 이렇게 썼다.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가도 우리 집을 어떻게 찾을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고향자랑모임에서 일가친척모두가 한날한시에 새 집을 배정받은 사실을 눈물속에 이야기하며 이처럼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는 맏아들과 둘째아들도 꼭같은 걱정을 편지에 썼다.

희한하게 변모된 고향마을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찾을것인가.

이것은 삼지연시에 고향을 둔 병사들의 한결같은 걱정이기도 하다.

조국방선을 지켜선 수많은 아들딸들의 이 행복한 걱정은 병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더욱 불타게 한다.

2. 수도 평양에 일떠서는 새 거리와 주택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으로 보시고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을 펼치신다.

그리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선 조선에서는 새로 일떠서는 인민의 보금자리가 나날이 늘어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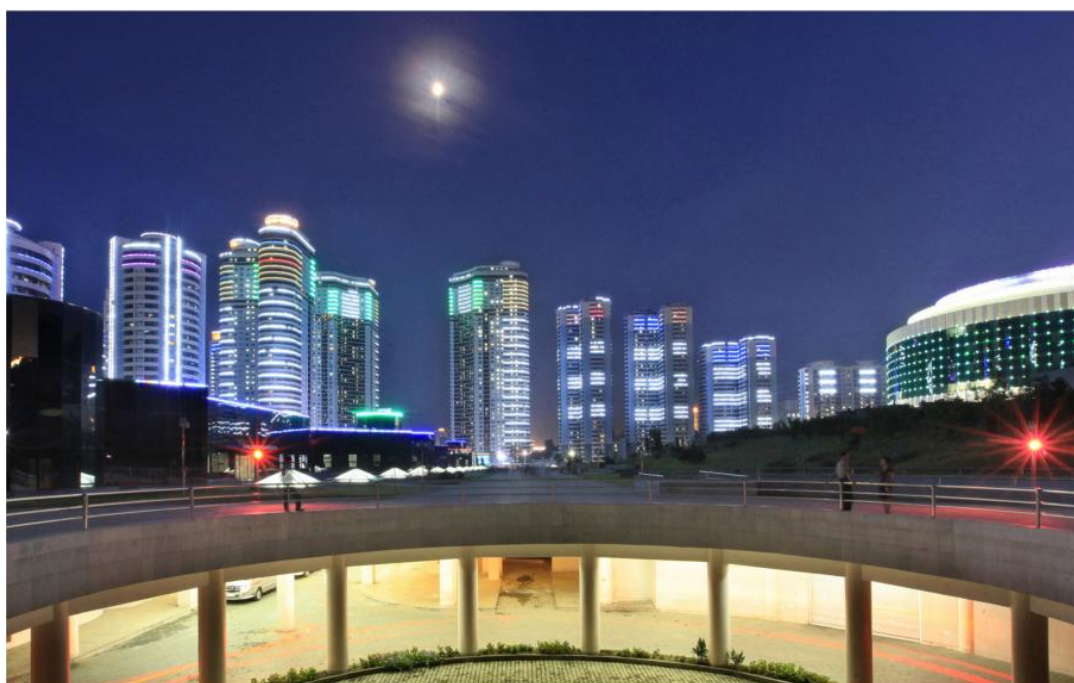
수도 평양의 면모도 날에날마다 달라지고있다.

1) 창전거리

창전거리는 주체101(2012)년에 건설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 건설한 키낮은 살림집들과 오래된 공공건물들이 줄지어있어 흘러온 력사에 대한 추억만을 불러오던 창전거리가 지금은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일신되였다.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가리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환호하듯 즐비하게 일떠선 창전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이며 새세기의 면모를 자랑하는 인민극장과 현대적인 봉사망들, 시원하게 탁트인 거리의 이채로운 풍치가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평양시를 사회주의문화의 본보기로,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리상이였다.

창전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눈앞에 둔 때에는 만수대지구의 낡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다 헐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며 나머지부지는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차례나 만수대지구설계형성안을 보아주시며 창전거리건설을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에 재능있는 설계집단을 꾸려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시였으며 창전거리건설에 력량을 총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건설의 단계별목표와 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을 립체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도록 수행방도도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자재와 설비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건설이 전 사회적관심속에서 진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조선인민이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100 (2011) 년 9월 8일 창전거리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수도 평양을 인민의 도시로 더 잘 꾸리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드높은 정치사상적열의와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지금 만수대지구에는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 식의 새로운 거리가 시대적미감에 맞게 건설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모든 건설자들과 수도시민들이 만수대지구를 훌륭히 꾸려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건설자들의 생활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완공후 살게 될 주민들의 편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온 건설장에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창전거리 대건설사업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창전거리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이 거리를 건설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5월 25일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거리의 풍경이 정말 볼만 하다고,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창전거리는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5월말까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6월 중순에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과업의 기본내용은 평양시를 명실공히 인민의 도시로,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5월 30일 또다시 창전거리건설장에 나오시여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창전거리 6호동과 1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창전거리 6호동 다동의 45층 1, 2, 3호, 나동의 2층 2, 3호, 1호동 2현관 20층 2호, 17층 1호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형식으로 건설된 여러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살림방의 크기와 부엌가시대의 쓸모, 창고의 통풍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들의 내부가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전거리를 건설하면서 훌륭한 살림집들과 함께 탁아소, 유치원, 중학교, 약국 등 교육 및 보건기관들, 상업봉사

망, 편의후생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 줄수 있게 하며 운영준비도 동시에 내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전거리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과 일군들, 돌격대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주신것은 건설자들이 창전거리건설에서 새로운 평양번영기를 창조하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사실 창전거리건설은 그 규모와 폭,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찬것이였다.

류선형, 원형, 각형 등 각이한 건축형식을 이룬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을 즐비하게 일떠세우고 현대적인 극장,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대규모의 종합적인 생활단위를 단 1년사이에 건설해야 하였던것이다.

목표는 비상히 높았고 건설기일은 기성관례로는 도저히 보장할수 없이 짧았다.

건설장에 달려온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불과 20여일동안에 종래의 낡은 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창조의 터전을 닦아놓았다.

주체100 (2011) 년 5월 22일 착공식을 진행한 때로부터 창전거리에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의지가 나래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대격전이 벌어졌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창전거리건설에서 공사량이 제일 방대한 초고층살림집을 매일 한층씩 일떠세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봉사시설들과 지대정리공사를 다그쳐 제일먼저 끝냄으로써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제끼는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전격전, 립체전을 벌려 45층살림집골조공사를 단 80여일만에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봉사건물건설도 높은 수준에서 불이 번쩍 나게 완공하는 혁혁한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에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설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초고층살림집건설과 지하건늠길들, 도로포장공사를 비롯한 건설과제를 손색없이 수행하였으며 탁아소, 유치원건물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고 교구비품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공사량이 방대한 고층 및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공사를 맡은 수도건설부문의 건설자들은 건설의 질과 속도를 비상히 높임으로써 살림집들을 멋쟁이건축물들로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꾸리였다.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많은 지구, 장비들을 창안도입하여 규모가 크고 층수가 높은 살림집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도의 설계부문 일군들은 류선형의 특색있는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도로와 원림설계를 비롯한 아름찬 설계를 최단기간에 작성하였으며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앞선 기술과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창전거리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전반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고 자재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건설장에서 새로운 건설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였다.

평양시민들은 공사전기간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리고 물심량면으로 건설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의 예술인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들끓는 건설장을 무대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들의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웅장화려한 새 본보기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서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6월 20일에 창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창전거리의 이전 주민들에게 입사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새 집의 주인들은 모두가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다.

입사증을 받아안는 순간 그들은 오열을 터뜨리였다.

《어버이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창전거리의 새 주인들이 받아안은 입사증은 인민들에게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사랑의 증서였다.

정녕 창전거리 새 살림집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다.

☆ 복받은 세가정

창전거리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에 입사한 세대들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안고있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새 집에 모시였던 세대들도 있다.

새집들이한 사람들이 매일 밤 고대광실같은 집에서 행복의 꿈만 꾸던 주체101(2012)년 9월 4일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집들이를 축하하시려 창전거리를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종로동 1반 1현관의 3층과 2층에 있는 세 집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창전거리 종로동 1반 1현관 3층 1호에서 살고있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인 심동수동무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새 집에서 살고있는 행복만도 가슴벅찬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찾아주시니 무슨 말로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심

동수동무와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방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 입사를 하였는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으며 세면장에 들리시여 몸소 수도꼭지도 틀어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터전으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계시였으면 선참으로 찾아오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매 방들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안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집식구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방석을 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일없다고, 년세가 많은 할머니에게 깔아주라고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며 앓지 말고 건강하여 로동당시대에 장수하라고 하시며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한 책임일군들로부터 인민들이 모두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고 꼭 나와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 이제야 왔다고 하시면서 새 집이 마음에 드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집안구조는 물론 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든다는 집식구들의 말에 주인들이 좋아하니 자신께서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집을 찾아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의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어 가정용품들도 마련해가지고 왔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명작동화집》들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은 잘 보관하였다가 앞으로 손주들이 태여나면 주라고 이르시였고 화면이 큰 TV는 가까이 앉아 보면 시력에 좋지 않다고 세심히 일러도 주시였으며 가정그릇묶음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집안에 딸들만 있는가고 물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들인 심일철동무가 인민군대에 나가있다는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

으며 주부인 한은순동무는 중학교 교원을 하고 딸들인 심선영, 심혜영동무들도 모두 교원들이라는것을 아시고 교육자집안이라고 하시며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런 궁전같은 집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씀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하는 교육자가정은 응당 새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는 교육사업을 중시하며 교육자들을 내세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거목도 뿌리는 보이지 않는것처럼 교원들이 바치는 헌신과 진정이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후대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 키우는데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가정이라고,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도 맡고있는 사업에서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몸소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집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층 2호에서 살고있는 중구역도시미화사업소 로동자 박승일동무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격정에 겨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직장은 어디에 다니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로동자들이라고 하시며 집안으로 들어서시여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박승일동무의 둘째아들인 박훈을 무릎에 앉히시고 볼도 만져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집안에 아들이 한명뿐인가고 물으시였으며 중학교 3학년생인 맏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아이들이 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에도 들리시여 둘째가 그린 그림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박승일동무와 안해 장순녀동무는 궁궐같은 새 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것이 꿈만 같다고, 모든것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현대적인 살림집을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선참으로 안겨준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가족이 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고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진정을 말씀올리였다.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다고, 종전에는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았는데 5칸짜리 살림집에서 살게 되니 처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 집이 옳은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고급가구들까지 일식으로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살림살이하기에 정말 좋다는 집주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주인들이 좋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 박원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애가 온것이 못내 기쁘시여 어디에 갔다가 늦어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축구소조에 갔었다는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애의 결의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박승일동무의 부부에게도 축배를 부어주시고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사랑의 선물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세계명작동화집》들을 안겨주시며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야 한다고, 둘째는 자신께서 가르쳐준대로 그림을 잘 완성하라고 이르시였으며 박승일, 장순녀동무들의 가족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살기를 바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층 1호에 살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영웅 문강순동무의 신혼부부가정도 찾으시였다.

매 방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강순동무가 주체98(2009)년 7월 30일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남편인 이 공장 3대혁명소조원 김혁동무가 군사복무의 나날 부대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지난 5월에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웃으시며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는 세대주의 이야기에 호탕하게 웃으시였으며 새 집이 정말 좋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좋아하니 창전거리살림집들에 대해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신혼부부에게 축배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여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창전거리의 주인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 축복받은 두 소년의 그후의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아주시였던 3층 2호집의 두 소년들의 그후의 소식이다.

어제날의 그 소년들이 이제는 끌끌한 청년들이 되였다.

형인 박원은 잊지 못할 그날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자기의 결의를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희망대로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여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동생 박훈은 희망대로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그의 방에는 그림들이 꽉 차있다. 박훈은 소년단시절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도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자나깨나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 생각뿐인 박훈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 아담한 방에는 그림들이 많다.

그는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군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훌륭한 작품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리고싶은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박원과 박훈,

두 소년의 오늘의 모습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안겨사는 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가를 가슴깊이 절감하게 한 나날이였다.

축복받은 두 소년의 오늘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과 양양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준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2) 은하과학자거리

평양에 창전거리가 일떠선 다음해인 주체102(2013)년에 은하과학자거리가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는 마땅히 당에서 맡아 풀어주어야 합니다.》

과학이 없으면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제끼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높이 떨쳐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던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주인공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여 안겨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몸소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를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며 인민군대와 사회의 강력한 건설력량도 직접 파견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였다.

지금은 과학으로 발전하는 시대이다. 과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매개 단위들이 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집행하는가 하는것을 이번에 건설하는 살림집의 질을 놓고 평가하려고 한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살림집건설을 중시하시였으며 훌륭한 과학자살림집이 빠른 시일안에 일떠서도록 몸소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문제도 수시로 료해하시고 다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하여 과학자살림집지구는 날이 갈수록 자기의 특색있는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그러던 주체102(2013)년 7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자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시였다.

륜환식도로를 따라 줄지어 솟아오른 덩지큰 살림집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들이 멋있다고,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외부만 보아도 들어가보고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다음과 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건물외벽을 일률적으로 외장재로만 처리하지 말고 건축물의 모양새에 따라 색타일과 외장재를 구색이 맞게 리용하면 보기 좋을것이다.

— 건설에 주변정리를 따라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지대정리에 낯을 돌리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계획적으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완공과 함께 건설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 공원을 멋쟁이로 훌륭하게 꾸려주어 과학자살림집지구가 주택지구 꾸리기에서 표본이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17호동 1현관 1층 1호와 2호를 돌아보시였는데 마감처리는 어떻게 하며 부엌에는 타일을 붙여주는가, 마감건재는 어떤것을 쓰려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손색없이 꾸려주자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금방석에 앉혀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가구도 일식으로 놓아주자고 하시며 여러 가구생산단위들에서 과학자살림집에 비치할 가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과학자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을 완전무결하게 꾸려놓고 과학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집들이를 한 다음 손을 대지 않게, 모든것이 만족하게 해주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을 훌륭하게 완공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날의 당부를 심장으로 간직한 전체 건설자들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일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8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과학자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건설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외벽타일붙이기를 완전히 끝낸 17호동의 1현관 1층 1호와 2호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7월에 오시였을 때보다 퍽 달라진 살림집의 내부시공을 비롯하여 모든 세부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벽지색갈과 매 방들에 놓은 침대, 책상, 쏘파 등 가구들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려 보아주시였으며 부엌, 세면장을 돌아보시고서는 마감건재를 좋은것으로 쓰면서도 시공을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가구들도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살림집들에 더 좋은 가구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가구생산단위들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과학자들이 집들이를 할 때 개인비품과 애용하는 살림도구만 가지고 올수 있게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살림집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든다고, 깨끗하고 손색이 없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살림집건설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주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로고속에 드디여 완공의 그날은 왔다.

총 28정보의 넓은 부지면적에 1 000여세대에 달하는 21개 호동의 현대적인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각종 봉사시설들 그리고 새 거리의 길이방향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간 륜환식도로들과 립체감이 나게 들어앉은 살림집들을 비롯한 건물들사이의 공간에 체육과 문화휴식을 동시에 할수 있게 꾸려진 16개의 공원들이 자기의 훌륭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였다.

은하과학자거리

그뿐이 아니였다.

3칸, 4칸, 5칸짜리 살림집들에는 공동살림방을 비롯하여 부모방, 부부방, 아이들의 방 그리고 특색있는 구조의 부엌 등이 배치되여있고 침대, 찬장, 신발장 등 10여종의 현대적인 가구들과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설비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과학자살림집은 마치 궁전같았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모든것이 완벽한 과학자살림집지구였다.

이렇듯 훌륭한 과학자살림집지구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주체102(2013)년 9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과학자살림집지구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호동과 15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을 손색없이 정말 잘하였다고, 부엌과 살림방, 서재에 배치된 가구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되였으며 마음을 붙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써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앞으로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것을 건설분야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하탁아소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놀이장과 식사실, 주방, 교양3반, 잠방, 지능놀이장, 종합놀이장, 실내물놀이장, 야외물놀이장들을 다 돌아보시고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잘 꾸렸다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맡은 일을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녀성들속에서 아이를 더 낳아 이런 훌륭한 탁아소에서 키워보아야 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도 웃음속에 들어주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아소의 보육원들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하1유치원도 돌아보시였다.

운동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무판을 깔아놓은것을 보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여놀수 있을것이라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것이라고 기뻐하시였으며 야외에 꾸려놓은 여러가지 유희기구, 운동기구들을 보시며 마음에 든다고,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성의껏 노력한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물놀이장, 높은2반, 높은5반, 낮은5반과 무용실, 잠방, 식당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매 방들을 재미나면서도 섬세하게 꾸렸다고, 침대들을 깜찍하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은하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를 보시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은하과학자거리에 일떠선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서 미래의 과학자들이 자라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후대교육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데서 뿌리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하과학자거리에 일떠선 은하원과 식당, 상점들을 돌아보시며 잘 꾸렸다고 평가하시였으며 로라스케트장과 여러가지 놀이기재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공원들을 보시고는 체육과 문화휴식을 동시에 할수 있는 공원으로 잘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의 도로량옆에 살구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으면 거리의 풍치가 더 살아나고 멋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고,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하과학자거리는 주택지구건설의 표준화,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살림집건설에서 이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타번지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속에서 건설자들이 7개월동안에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는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 시대의 선경으로, 문명국의 체모를 갖춘 거리로 훌륭히 일떠섰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며칠후인 9월 11일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그후 련일 온 나라의 관심과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아름다운 색갈로 장식되여 산듯한 느낌을 주는 새 거리로 이사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련이어 들어섰고 집집마다에서는 경사로운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어머니당의 은정이 너무 고마와 새 집문턱을 선뜻 넘어서지 못하는 집주인들과 모든 생활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방들을 돌아보며 비품과 가구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는 가족들의 기쁨은 정말로 컸다.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이 하늘같은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가 뜨겁게 어려있었다.

3) 교육자살림집

과학중시,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들과 함께 교육자들에게도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1)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주체102(2013)년에 은하과학자거리와 함께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특색있는 지붕을 이고 쌍기둥을 이룬 44층, 36층짜리 살림집이 하늘높이 치솟아올랐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44층, 36층짜리 살림집에는 세탁소, 목욕탕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주변에는 소공원도 있다.

매 세대당 면적이 200여㎡에 달하며 넓디넓은 방만 하여도 공동살림방, 부모방, 자식방, 서재, 부부방 다섯칸이나 되고 거기에 부엌과 창고, 복도까지 있으며 모든 살림집들의 공동살림방의 입구가 완만한 아치형으로, 2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여있어 이름난 호텔내부를 련상케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TV수상기탁이며 쏘파, 책장, 장식장, 책상, 걸상, 식탁, 신발장 등 질좋고 보기 좋은 고급가구들만 꼽자고 해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뿐만아니라 액정TV수상기며 문양고운 그릇들이 매 집에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추운 걱정, 더운 걱정을 모르게 되여있다.

마음껏 더운물을 쓸수 있게 물가열기가 설치되여있는가 하면 부엌에는 배풍기가, 식사칸에는 조명의 세기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는 특색있는 등이, 세면장에는 샤와며 빨래줄이, 방들에는 은은한 빛갈의 창가림도 갖추어져 못 하나 박을 필요가 없고 맨몸으로 들어와 생활할수 있게 모든것이 완전무결하게 구비되여있다.

구름우의 휴식터로 불리우는 교육자살림집내부의 휴식터도 볼만 하지만 베란다에서 주변을 부감하는 멋 또한 이를데 없다.

사방이 확 트이고 주변에는 강이 흐르는데다가 룡남산이 지척에 바라보이고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야말로 집터도 명당자리이며 새 집도 최고급호텔수준인 멋쟁이살림집이고 궁전인 이 살림집이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다.

새집들이하는 날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직접 설계도 보아주시며 지도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살림집건설이 제 기일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고도 무려 세차례나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살림집건설이 한창이던 주체102(2013)년 8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초고층살림집건축공사를 끝내고 마감공사에 진입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완전무결한 살림집을 과학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집들이를 하며 손을 대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과학자들을 내세우려고 한다고,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으며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우고 적극 우대해주어야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고 살림집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까지 무조건 완공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반드시 끝내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러던 그해 9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색타일과 경질유리로 특색있게 장식한 살림집외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고 2호동 3층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공동살림방, 부엌, 서재, 부부방 등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비준해준 설계안대로 가구들을 구색이 맞게 놓았으며 바닥재도 질좋은것으로 깔았다고, 벽지의 색갈과 무늬도 온화한감을 준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집에서 살게 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무엇을 더 안겨주어야 하겠는가를 마음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약속한대로 모든 살림집들에 액정TV도 놓아주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그릇들도 일식으로 더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책상을 놓은 서재벽면에 당반식책장도 설치해주며 생활에 편리하게 복도벽면에는 원형거울도 달아주라고 이르시였다.

살림집의 한층한층을 몸소 걸어오르시며 건설정형에 대해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7층에 꾸려진 실내휴식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산책과 독서, 오락을 할수 있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여놀수 있는 실내휴식터를 꾸리기 정말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베란다에 나가시여 시내전경을 부감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위치가 정말 좋다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집이 일떠섬으로써 룡흥네거리가 더욱 환해졌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한 살림집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이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날의 현지지도가 있은 10여일후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10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으로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궁궐같은 교육자살림집에서 누리게 된 이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살림집을 돌아보시고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고도 이렇듯 자기들이 살 집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에 전체 교원, 연구사들은 그이를 우러러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목청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여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앞으로 새집들이를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그들의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을 축복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상상봉에 오르게 되였다.

(2)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주체102(2013)년 8월 13일 건설중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살림집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설계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에 참가하였던 군인건설자들을 투입해주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영웅적위훈으로 받들어온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불과 몇개월사이에 2개 호동의 초고층 살림집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체103(2014)년 5월 20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골조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에 이른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며 정말 멋있다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며 외벽을 곡면으로 처리하니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처럼 보인다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반영된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걸작품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살림집의 밑단부분에 상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을 꾸려주니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며 복도와 전실사이의 출입구처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가구제작도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자고 하시면서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 건설하는 거리의 내외부형성을 높은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함으로써 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을 끝내자고 하시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500세대를 더 지어주는 문제도 빠른 기간안에 검토하고 결심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은 남들같으면 엄두도 못낼 방대한 건설과제를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사회주의문명국의 건축물답게 일떠서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주체103(2014)년 8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돛배형식의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외벽에 타일까지 붙이니 정말 멋있다고,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의 요구대로 건물의 외벽에 열선반사판유리까지 씌우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머지않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2호동 5층 1호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동살림방, 부부방, 부엌, 서재 등 여러 방들에 일일이 들리시여 벽면과 바닥면도 자세히 보시고 시공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시였으며 아치형으로 된 복도와 전실사이의 출입구기둥을 보시면서는 장식장으로 처리하면 특색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구들을 놓을 자리도 보아주시고 바닥재와 벽지를 비롯한 마감건재리용과 살림방에 설치할 접속구의 개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며 살림살이에 필요한것이라면 소소한것이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새 집에서 살게 될 교육자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인재육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게 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밀단에 꾸려지고있는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도 돌아보시면서 설계의 요구대로 잘 꾸리고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운영단위에서 나와보고 살림집의 준공과 함께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으며 살림집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맞게 록화사업을 비롯한 주변정리를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볼수록 멋쟁이라고, 대동강건너에서 바라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배합된 건축물이 로동당시대에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감으로써 당창건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는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드디여 완공되게 되였다.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높이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여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1현관 5층 1호, 46층 1호와 기단층부분에 건설한 상점과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들의 부엌과 식사실, 서재, 부부방 등을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이 시공했으며 살림방벽면처리도 세련되게 하였다고, 특히 전실입구처리를 잘하라고 하였는데 개구 좌우켠에 장식장을 설치해주니 특색있다고 평가하시였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찬장, 책장, 쏘파, 침대 등 고급가구와 비품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고, 여기에 천연색TV까지 놓아주면 교육자들은 물론 주부들과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수 있게 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고급호텔같다는 일군들의 반영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이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려졌다고, 집주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였다고,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6층에 올라 날로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있는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하고있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세계적인 과학자거리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4) 미래과학자거리

주체103(2014)년 5월 2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의 도로를 축으로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건설하여 옹근 하나의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위해 힘있는 건설력량을 특별히 조직하여 현지에 파견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2월 13일,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였다. 전용기안에서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단계에 완공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골조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단계 건설도 잘해야 1단계에 건설한 대상들이 빛이 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2단계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해주시였다.

공중에서 날로 변모되여가는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자태를 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공중에서 건설장을 내려다보면서 만족하였는데 현지에서 보는 광경은 더욱 웅장하고 볼만 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77호동 3층 1호, 지열취수뽐프장 등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1단계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대상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떠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거리의 면모가 잘 살아나게 원래 있던 제방을 통채로 들어내고 대동강기슭을 따라 제방공사를 새롭게 하였으며 살림집내부시공도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을 맡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비품들도 높은 수준에서 제작하여 놓아주며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

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도 구색에 맞게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설계상, 공법상요구대로 건축공사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대동강호안정리와 주변록화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까지, 2단계 건설은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며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우리 당 건설정책의 정당성, 우리 인민의 문명척도, 군민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령도밑에 최근시기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서는 여기 과학자거리건설장과 마찬가지로 대변혁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장전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통하여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자기들의 건설장을 부감하신데 이어 현지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훌륭히 완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드디여 그날은 왔다.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미래과학자거리가 웅장화려하게 솟아올랐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거리에 하늘높이 솟아오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각종 봉사망들과 편의시설들, 휴식터들과 체육공원 등 모든 건축물들은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최상급의 거리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이 미래과학자거리의 매 건축물마다, 살림집들의 매 방마다, 가구마다에도 력력히 어려있었다.

미래과학자거리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해 10월 20일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리,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기존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하니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로 되였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멀리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타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초고층살림집우에 상징탑을 건설했는데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도 돌아보시고 살림집들의 시공의 질이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놓으니 교원, 연구사들이 손짐만 들고오면 살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각종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물의 기단층들에 구색이 맞게 배치하였을뿐만 아니라 흠잡을데없이 꾸려놓았다고, 주민들이 마음껏 휴식하고 운동도 할수 있도록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을 이채롭게 꾸려놓았으며 주택지구의 원림조성과 대동강호안공사도 정말 잘했다고 거듭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국을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1월 3일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이 온 나라의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들에 대한 새집들이가 시작되였다.

현대적인 가구비품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생활에도 편리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사랑의 살림집을 받아안은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모든 교육자, 과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뜨거운 눈굽을 적시며 울고 웃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서 살게 된 영광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교원은 북받치는 감격을 누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은덕이 하늘같아 눈물만 앞선다.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 집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령도자의 발기와 지도밑에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하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지금도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공동살림방, 부부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놓으니 교원, 연구사들

이 손짐만 들고오면 살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진정 조선의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입사한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당시), 평양철도종합대학(당시),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당시), 평양기계종합대학(당시)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심장에서도 울려나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친어버이사랑과 은정이 있었기에 조선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오늘 세상이 부러워할 최상급의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는 꿈같은 영광과 행복을 지닐수 있게 되였다고 토로하면서 어머니당의 은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교육자, 과학자된 긍지와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은 사업성과로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자립성

미래과학자거리

5) 려명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주체106(2017)년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사회주의승리의 려명을 알리며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보란듯이 솟구쳐올랐다.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려명거리 준공식이 4월 13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조국을 백승의 길, 비약의 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려명거리건설완공의 환호성은 인민들에게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고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민헌신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격찬의 폭발이였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뜻, 의지로 굳게 뭉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하고 원쑤들의 비렬하고 치졸한 제재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따라 승승장구해가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시대와 력사에 력력히 아로새기였다.

준공의 그날 조선인민은 려명거리건설에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고가 어려와 누구나 눈굽을 적시였으며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던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1) 중대결정

주체105(2016)년 3월 17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앞날을 상징하는 려명거리라는 이 이름은 해솟는 룡남산에서 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도 담겨져있고 건축에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도 담겨져있는 뜻깊은 이름이다.

일군들은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제는 과학기술강국의 원대한 구상을 담아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명명해주시고 오늘은 머지않아 다가올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을 그대로 담은 려명거리이름을 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는 거리이름을 하나 지어도 거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으시였으며 그것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형성안과 조감도, 모형사판 등을 보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킬 거리로 일떠세우자면 거리형성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흥네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웅장화려한 고층건물들로 건축군을 형성하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는 정중성보장의 원칙에서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배치하며 금릉2동굴로 뻗은 도로주변에 지대적특성과 조화되는 건물들을 일떠세우면 려명거리형성이 특색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체신소 등 공

공건물들과 봉사망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만들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설계 및 시공단위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록색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등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건축물외부장식용 마감건재의 규격과 색갈, 무늬 등을 다양화, 다색화하기 위한 사업과 건축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려명거리가 일떠서면 우리가 최근 해마다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 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착공의 첫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오늘의 려명거리건설선포가 어떤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였다.

그렇듯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날의 현지지도소식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졌다.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을 비롯한 보도물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데 대한 소식이 실렸다.

려명거리건설을 세계가 지켜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섰다.

한층한층 눈부신 속도로 올라가는 살림집들과 분과 초가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새 거리의 모습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 그대로였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가는 조선로동당의 모습, 조선인민의 모습이였다.

(2) 1년만에 일떠세운 기적적인 속도, 그 비결

지금도 려명거리를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가 1년동안에 건설되였다는것을 선듯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리는 분명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

주체106(2017)년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온 나라가 성대한 경축분위기로 들끓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려명거리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현대적인 거리형성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9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4 800세대이상 되는 44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40여동의 공공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이런 방대한 공사를 1년동안에 해제낄수 있은 비결은 무엇인지.

려명거리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정말이지 건설에 직접 참가하였던 우리로서도 선뜻 믿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선구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의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구자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십니다.》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하여 당보에 공개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보도는 불과 몇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적대세력들이 떼무리를 지어 걸음걸음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전대미문의 역경속에서 거창한 려명거리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였던지 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하여 비준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천수백건이나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때로는 하늘길에 오르시여, 때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에 바치신 헌신의 로고중에서 주체106(2017)년에 두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 내용의 극히 일부를 아래에 전한다.

○ 주체106(2017)년 1월 25일

이날 려명거리건설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려명거리조감도와 사판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건물들을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담하게 건설하였으며 룡흥네거리의 영생탑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초고층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웅장화려한 건축군이 형성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에 여러개의 살림집구획들을 설정하고 매 구획들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일떠세운 결과 거리안에 거리가 생겨났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를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건설하기 위해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록화기술 등 록색건축기술들을 광범히 받아들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건물들의 기단층과 지붕에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해빛을 방지하여 건물의 내부온도가 올라가는것을 막고 겨울에는 보온작용을 하여 내부온도가 떨어지는것을 막을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아주 좋다고, 비물리용체계도 받아들여 비물을 지하탕크에 잡았다가 건물지붕우에 꾸린 온실들과 록지에 관수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잘했다고 하시였다.

초고층살림집들이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70층살림집이 장관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층수가 제일 높은 살림집이 려명거리에 일떠섰다고, 초고층살림집의 아래층부분에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는 기단층을 형성하였으며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을 꾸리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서재, 부엌 등으로 이루어진 살림집이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베란다에는 자

연채광창을 달아주고 방들에는 겹창들을 설치하였는데 잘하였다고 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교사들과 기숙사는 물론 살림집지구들에 일떠서는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지휘,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문제,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그칠데 대한 문제, 전기, 난방, 급배수계통시운전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록화 및 지대정리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문제,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된 주택과 공공시설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려명거리건설완공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곳은 인민의 지상락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서 진행하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최근 해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

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 주체106(2017)년 3월 15일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른새벽 려명거리건설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것만 같다고, 말그대로 려명거리라고 하시면서 지난해 북부피해복구로 건설을 석달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추운 날씨에도 타일붙이기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끝내였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양지쪽에 장식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착상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채광창으로 된 지붕을 씌워 련결통로종합봉사망을 꾸려놓았는데 특색있다고, 려명거리에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보호에도 좋고 휴식장소로도 리용할수 있도록 40층이하의 건물옥상들에 지붕록화기술을 도입하였을뿐만 아니라 거리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잔디를 심어 방대한 록지면적을 조성하였는데 잘하였다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려명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의 외벽색갈을 록색과 흰색으로 통일시켰는데 거리를 거니느라니 마치도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에 들어선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매 건축물들이 생김새도 멋있고 색갈도 마음에 든다고, 초고층살림집 지구는 물론 다층살림집지구도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특색있게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초고층건축군과 다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려명거리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립체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마감공사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난방과 조명보장대책을 더 잘 세우며 급배수계통시운전을 비롯한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려명거리에 봉사망들을 전개하는 단위들에서 준공식이 끝나는것과 함께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운영준비를 착실히 해놓을데 대한 문제 등 려명거리건설완공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니 우리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금 강렬하게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은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으로 기어이 완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려명거리가 그처럼 빨리, 그처럼 훌륭하게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6) 경루동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일떠선 강안다락식주택구이다.

경루동에 일떠선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그러면 이 희한한 살림집들이 어떻게 일떠서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보통문주변에 강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완성되도록 하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 3월 25일 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돌아보시며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건축물들의 설계와 원림설계를 잘하여 도시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우리 나라 주택구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내밀어 올해중에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도시건설을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과 휴식,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새로 일떠세울 호안다락식주택구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문주변에 강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는 소식은 인민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건설이 짧은 기간에 진척되여 보통강강안지구가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 8월 어느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에 따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미학성과 편리성, 현대성을 구현하면서도 친자연적으로 특색있게 건설된것과 관련하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으로 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경치좋은 수도중심부의 보통강기슭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층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울데 대한 구상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이 진행되

는 1년간 수많은 설계형성안들을 검토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며 정력적인 지도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빠른 속도로 일떠서게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4월 2일 일군들과 함께 경루동에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돌아보시였다.

주택구를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년동안 건설자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결정관철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로력적헌신에 의하여 수도의 중심부에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현대성과 편리성이 훌륭히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고, 당중앙은 이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루동에 일떠세운 본보기적인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경험은 전국적판도에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목표밑에 우리 당이 내세운 당면한 중앙과 지방의 건설과업집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주체건축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살림집내부를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살림집들의 내부가 구조적으로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으며 뜻깊은 태양절전야에 각 부문들에서 선발된 대상세대들에 입사증을 전달해주고 준공식을 의의있게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루동

주체111(2022)년 4월 13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근로하는 인민의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이 집집마다에 어려있는 경루동에 위대한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속에 서있는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히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의 집을 찾으시여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정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년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모든 생활상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같다고,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로방송원의 무랍없는 이야기도 기쁨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로당익장하여 앞으로도 당중앙의 대변인답게 방송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최성원방송원과 동태관론설위원의 집을 찾으시여 그들의 가족을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한식솔의 정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 집의 주인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

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거듭 축복해주시면서 앞으로 시간을 내여 꼭 다시 오겠다는 은정넘친 약속을 하시였다.

경루동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새 집을 받아안은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하려고 한다.

❖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

경루동에 주인들이 입사한 후 며칠 지나서 이곳을 찾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새 보금자리를 편지 며칠이 흘렀건만 어느 집에 들려보아도 매일같이 새라새로운 이야기들이 태여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었다.

26호동 3층 1호에서 사는 평양뻐스공장 궤도전차수리직장 직장장 김영남동무는 입사한지 며칠이 지났어도 때없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기 어려워한다고 한다.

《집에 하도 방이 많으니 어느 문으로 나가야 할지 통 모르겠구만.》

40년간 묵묵히 공장에서 일해온 공훈기술자가 이렇게 난감해하면 안해인 신성희동무는 《난 꼭 룡궁에 온 기분이예요. 룡궁밖을 나서는게 그렇게 쉬운줄 알아요？》라고 말하며 남편을 바래우군 한다.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모습을 보고 또 보는 김영남동무에게서는 늘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내 이제 새형의 궤도전차를 올해 계획한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꼭 기쁨을 드리겠소.》

39호동 1현관 8층 3호에 사는 평양가죽이김공장 작업반장 김명도동무의 집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작업반원들이 모두 집구경을 왔다가 저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오늘 우리가 경루동 구경간다니까 온 공장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압니까? 공장종업원들이 이제 줄을 지어 찾아올겁니다.》

《축하합니다. 반장동지, 옛날에는 가죽을 이기는 백정이라고 하면 사람축에 들지 않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로동당시대에 경루동의 주인이 되였다는 새 전설이 태여났으니 우리야말로 세상에 부럼없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동대원구역연료사업소의 조명환, 김춘남동무들은 한날한시에 경루동 10호동 1현관 5층 1호와 2호의 주인이 되였다.

조명환, 김춘남동무들의 안해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주민들이 쓸 땔감때문에 남모르게 애쓰던 남편들의 수고를 우리 당에서 속속들이 헤아려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었다고 하면서 격정에 젖은 어조로 말하였다.

《밤늦게 퇴근해온 남편이 옷을 벗을 때면 탄가루가 떨어진다고 얼굴을 찡그리군 하던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그처럼 내세워주시는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루동에 새 보금자리를 편 다음부터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억만장자들도 깜짝 놀랄 사회주의번화가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고마움의 인사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감사편지로 올리고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몇자 썼다가는 지우고 또다시 두 집안이 토의하여 몇줄 쓰다가는 또 지우며 며칠밤을 새운다는것이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작업반장 전금실동무가 사는 42호동의 호화살림집에서는 자주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온다고 한다.

《어머니,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긴 맞아요?》라고 하는 맏아들 차현웅동무의 목소리이다. 그도 역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준비직장에서 일하는데 하루에도 몇차례씩 집의 매 방들을 어루쓸며 돌아본다고 한다.

길확실영웅처럼 살자고 아글타글 애쓰며 28년간이나 작업반장으로 일해온 전금실동무는 인차 맏아들결혼식을 한다고, 복이 쌍으로 찾아온다고 하며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쳤다.

《한뉘 실만 뽑아온 저에게 이런 호화주택을 안겨주셨으니 이 크나큰 은덕을 머리칼을 베여 신을 삼은들 어찌 다 갚을수 있겠습니까.》

요즘 경루동에서는 이 집에서처럼 결혼식을 하는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저저마다 아름다운 구슬다락에서, 애국자들의 동리에서 하는 자기 집의 결혼식을 《경루동의 첫 결혼식》이라고 자랑한다. 경루동의 집집마다에서는 매일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7) 당 제8차대회 결정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

주체110(2021)년초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수도 평양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대회에서 결정한대로 평양시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반드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에 2만 5 000세대의 특색있는 살림집들이 들어찬 산악협곡도시, 문명한 광산도시를 형성하는 동시에 도, 시, 군들에서도 년차별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범위에서 부족되는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당결정관철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수도 평양에는 해마다 1만세대이상씩 되는 살림집들이 건설되여 현대적인 새 거리들이 생겨나고있다.

(1) 송화거리

《이 거리가 정말 우리가 살던 곳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거리가 1년동안에 솟아날수 있는가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 이것은 지난날 이 거리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이 거리에 와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다. 정말 천지개벽된 송화거리이다.

천지개벽된 이 거리의 전변을 두고 사람들은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버이 그 사랑에 눈굽을 적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자신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마음을 울리였다.

주체110(2021)년 3월 23일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첫해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진행되였다.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건설자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충만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방대한 공사이지만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수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전선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건설자들이 창조적열성과 노력, 열렬한 애국심으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기발을 몸소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약동하는 3월의 대지를 뒤흔든 장쾌한 뢰성에 이어 드넓은 건설장에서는 수많은 굴착기들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일제히 공사에 착수하였다.

착공의 첫날부터 송신, 송화지구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도의 면모를 또 한번 개변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의 시대를 열어놓으려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순결한 충성심과 애국열의에 의해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청년들도 녀맹원들도 하루일이 끝나면 너도나도 이 건설장에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함께 땀을 바쳤다. 이들을 건설장에서는 야간지원돌격대라고 불렀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착공한 주체110(2021)년 4월부터 주체111(2022)년 2월까지의 기간에 연 14만 3 000여명의 청년들이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에 달려나가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으로 6만 4 000여㎥의 토량처리와 1만 1 000여㎥의 모래운반, 1만여㎡의 지대정리를 비롯한 많은 공사과제들을 말아해제끼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 살림집이 1년밖에 안되는 기간에 기적처럼 솟아올랐다. 56정보의 령역에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배치되고 여러 휴식공원,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주민지구와 예술적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되여 하나의 새 거리 송화거리가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1(2022)년 3월 15일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거리의 전경이 정말 볼만하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였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수도 평양을 사회주의강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뚜렷한 자기 특징이 살아나는 나라의 심장부,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것이 중핵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설계기관들에서는 현대발전추세의 요구에 맞게 자연지리적조건과 수도시민들

의 편의성을 첫자리에 두고 거리 및 구획형성과 도로설계를 잘하며 다양성이 보장된 여러 건축물들의 예술적결합을 중시하고 특히 모든 요소들의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키는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건축물들의 직관적장식효과를 정치, 사상, 문화적감정에 맞게 잘 살리며 인민성과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상업, 급양봉사기지들을 잘 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는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고 도시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의 높은 충성심에 받들려 송화거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였다.

주체111(2022)년 4월 11일에 송화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송화거리 준공식은 주체조선의 정치사상문화, 문명을 대표하는 수도 평양의 휘황한 래일을 당겨오는 승리의 첫 포성이였다.

송화거리

준공식을 한 송화거리에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 80층초고층아빠트의 주인들

송화거리의 80층초고층아빠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입사하여 새 생활을 꽃피우고있다.

사실 송화거리 준공식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진 후 수도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평양의 제일 높은 살림집에서 누가 살게 될것인가 하는것이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80층초고층아빠트의 5층까지는 수십개의 봉사망으로 되여있고 6층부터 80층까지가 살림집이다. 한개 층에 12세대의 살림집이 있고 인민반만 해도 20여개나 되는 이 아빠트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도의 공장, 기

업소의 로동자들이다.

이 아빠트의 세대명단을 펼치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화력발전소, 평양피복공장을 비롯하여 수도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명칭을 볼수 있다. 부부로동자만 해도 수십쌍이나 되고 온 집안이 로동자가정인 세대도 많다.

3현관 73층 10호에 보금자리를 편 로동자부부는 지금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한다. 세대주는 평양곡산공장 로동자이고 안해는 선교편직공장 로동자이다.

80층초고층아빠트의 제일 웃층의 한 살림집에는 보통강구역화초사업소에서 일하는 한 로동자부부가 살고있다.

20여년간 사업소에서 일해오고있는 안해는 일터에서 소문난 혁신자이고 제대군관인 그의 남편 또한 맡은 일에 성실한 로동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통강구역의 자그마한 단층집에서 살던 그들은 송화거리건설이 한창이던 지난해 하루가 다르게 솟구치는 아빠트를 보며 저기에서는 과연 누구들이 살게 되겠는가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토록 부러워 바라보던 그 초고층아빠트의 80층 5호에 바로 그들이 보금자리를 편것이다.

아무때나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는 수도며 가정주부들의 편리를 도모하여 부엌에 따로 설치한 전열기,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가구들…

아침저녁으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근로하는 로동계급을 제일로 내세우는 우리 제도, 우리 정책이 제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것이 이들부부의 심정이였다.

이것은 2현관 52층 8호에 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부부와 24층 6호에 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혁신자부부를 비롯한 80층초고층아빠트의 모든 가정 아니 송화거리의 그 어느 가정에서나 한결같이 울려나오는 진정의 목소리이다.

송화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속에는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아들이면 《송신》, 딸이면 《송화》라고 짓겠다고 뜨거움에 겨워 이야기한다.

(2) 화성거리

1년만에 일떠선 새 거리이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주체111(2022)년 2월 12일에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새로운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포성이 또다시 울린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대건설을 강력하고 주도세밀하게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뒤이어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었다.

장쾌한 뢰성에 이어 착공을 경축하는 축포탄들이 련이어 날아오르고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신 격동적인 소식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한없는 격정에 끓게 하였다.

사람마다 환희에 넘쳐 외우고 또 외우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위해주고 하늘높이 떠받들어주며 더 밝고 창창한 미래

를 끝없이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겨있으며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이 자기들을 보살펴주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절절하게 울려나왔다.

만경대구역 장훈1동에서 살고있는 궁만식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 방대한 공사를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하실 때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지금같은 때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인민과 한 어길수 없는 약속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그렇듯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니 세상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같으신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설장에 달려나가 땀을 흠뻑 흘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쟁로병으로서 새세대들에게 당부하고싶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다해 받들고 그이의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현하는 길에 우리 조국의 부흥이 있고 무궁토록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말입니다.》

평양화력발전소 자동화직장 로동자 엄영철동무는 《최근년간에만도 인민을 위한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새집들이경사가 났습니까. 그 모든 보금자리들에 살림을 편 주인들이 다 나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는데 또다시 인민의 새 거리를 높이 떠올리기 위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화성거리

그러면서 그는 은혜에 보답이 따르는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이라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나라의 맏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일터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신문과 TV화면을 통하여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소식에 접하고 누구나 눈굽을 적시며 결의들을 다지였다.

착공의 발파소리가 울린 때로부터 1년만에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이 훌륭히 완공되여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또 하나 일떠서는 건설기적이 일어났다.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을 정책으로,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해마다 강력히 전개해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건설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화성지구에 일떠세우는 첫 단계의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던것이다.

화성지구에 펼쳐진 거창한 전변은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과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저력,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항상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성과 애국으로 받드는 조선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안아온 세기적인 기적이였다.

1년만에 화성지구에 일떠선 1만세대가 넘는 새 살림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로고속에 마련된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어나가는 건설자들이 떠올린 충성의 기념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해성과에 토대하여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만사를 철저히 복종지향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것은 도시건설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에 맞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였으며 살림집배치계획안과 조감도, 형성안 등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인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평면배치, 구획배치를 잘하고 건축형식도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건식마감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화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국책을 반영한 표어를 설치하여 거리의 정치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모든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려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들을 련결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1 630여건에 달한다.

우에서도 언급되였지만 주체111(2022)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게 될 모든 건설대상들중에서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제일 앞서나가야 할 기본전구로 규정하시고 건설을 박력있게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건설정책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화성지구에 전개된 건설부대들이 기치를 들고 모든 건설전구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화성전역을 기적과 위훈창조의 용암으로 끓게 한 열원이고 원동력이였다.

송화거리의 거의 3배나 되는 15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백수십만㎡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수백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 시설물들을 건설해야 하는 화성지구 1단계 건설은 실로 거창하고 방대하였다.

두텁게 얼어붙은 땅도, 때없이 쏟아지는 폭설도 당의 요구를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해가는 화성용사들의 불굴의 기개를 꺾지 못하였다.

당의 명령이라면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며 언제나 드팀없이 관철해온 군인건설자들은 추가된 살림집건설에서도 주저를 모르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해나갔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새로 2 000여세대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을 한겨울에 일떠세워 거의 동시에 완공할수 있게 된것은 당이 요구하면 가능성을 타산하기 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간고분투한 건설자들의 한계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각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휘하며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전국각지의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착공의 첫날부터 화성지구 건설장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수도건설에 한몫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려는 위대한 세대의 강인성, 자력자강의 억센 힘에 의하여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은 드디여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완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번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되였다.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화성지구에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이 건설된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과 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영웅적기상과 불가항력이 어떤 변혁을 안아오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었다.

주체112(2023)년 4월 16일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건설자들과 선경거리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으며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수도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최중대사항으로 추진하고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의 건설정책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을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된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들에서 자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원하시였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참가자들은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화성지구의 새 거리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꿈같은 행운을 받아안은 새 거리의 주인공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영광을 감격의 눈물속에 토로하면서 위대한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화성지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응축된 사회주의번화가로 주체112(2023)년 4월 21일부터 이사짐을 실은 차행렬이 줄지어 들어섰다.

당과 국가가 무상으로 안겨준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 보금자리를 펴게 된 근로자들을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 지휘관들, 수도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 건설자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공화국기가 나붓기는 집집의 창가들에서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에 목메여 주민들이 터치는 감격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화성구역 화성2동 41인민반 3층 3호에 입사한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서경훈은 어제 당의 은정어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꽃펴나는 새집들이경사가 우리 가정에도 꿈만같이 펼쳐졌다. 신문과 TV화면에서 보아오던 이런 희한한 살림집이 내 집이라는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앞선다.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큰절을 올리고싶다.

화성구역 금릉1동의 새집을 받아안은 김기호로인은 전쟁로병들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희한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니 10년, 2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고 하면서 로쇠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받드는 길에서 전승세대의 본분을 다해갈 심정을 토로하였다.

락랑구역 혁신고급중학교 교원 홍철옥은 새 거리에 들어서니 당의 령도밑에 부흥번영할 조국과 후대들의 래일이 한눈에 다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새집들이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최우선시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정책이 안아온 위대한 현실이다.

사회주의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요람인가를 더욱 깊이 새겨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겠다.

대성구역 룡흥2동에 살던 인민군대후방가족인 김광성은 자식들에게 훌륭한 집을 물려주고싶은 부모들의 소원을 고마운 우리 당이 풀어주었다고 하면서 화성거리의 새집을 받아안은 꿈같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아들이 지켜선 조국보위초소에도 기쁨이 넘쳐날것이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화성구역 금릉1동 41인민반 3층 3호에 입사한 전복남은 나라에서는 우리 제대군관들의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법을 내오고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으며 오늘은 또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선참으로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총대로 우리 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던 그 시절처럼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고마운 우리 당, 우리 국가를 빛내이는 영예로운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새집들이로 설레이는 어느 집을 찾아가도, 어디를 가보아도 어머니 당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보답의 일념이 격정의 바다가 되여 흐르는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이다.

화성거리에 넘쳐나는 복받은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인민의 기쁨속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더욱더 문명부강해질 내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주고있었다.

3. 새롭게 변모되는 농촌문화주택들

1) 문명개화된 농장도시－장천남새농장

주체104(2015)년 6월 온 나라가 장천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하나의 농장도시입니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입니다.》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장천땅의 천지개벽.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농촌을 형상한 하나의 대형전경화를 보는것 같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말그대로 별천지를 이룬 장천땅. 하나의 도시구획을 방불케 하는 장천지구의 현대적인 온실과 공공건물, 농촌문화주택들은 내용과 형식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꾸려졌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단층, 소층농촌문화주택들,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된 수백동의 희한한 남새온실들,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않게 꾸려진 문화회관,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것 없으며 요소요소가 흠잡을데없이 꾸려진 장천원…
배구장과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있는 공원을 찾으면 마치 유원지에 들어선듯싶다.

그뿐이 아니다.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 등이 잘 꾸려진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농업과학원 등과 련계를 맺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검색, 열람할수 있으며 그 어떤 분석도 높은 수준에서 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장천남새농장

아담하고 깨끗한 리병원이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에도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농장원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수첩에 《빈봉투농장》으로 올랐던 농장이 이해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

장천땅의 천지개벽은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당이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떨쳐나서는 조선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장천남새농장을 본보기, 불씨로 하여 온 나라 농촌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6월 29일 자기의 본래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훌륭히 변모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당시)을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폭의 그림같다고,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농장원들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비,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믿음직한 남새전문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농장에서 수십정보의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하고 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장천원, 문화주택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농장원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문화회관을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배구장,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갖춘 공원과 유원지도 멋있게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적인 봉사기지인 장천원의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목욕, 리발, 미용, 물놀이, 옷수리, 신발수리, 사진, 청량음료 등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것이 없으며 요소요소가 흠잡을데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에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을 잘 꾸려놓았으며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주택들에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를 설치하고 메탄가스공급체계를 세워놓았으며 집집마다에 과일나무들도 심어놓음으로써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 농촌마을의 과수원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주택구내길에 깔아놓은 청석도 보기 좋고 리인민병원도 아담하고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그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토벽식박막온실, 궁륭식련동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생산과 농장관리운영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온실마다에 주렁진 도마도 등을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새작황이 좋다고 하시였으며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도 잘 설치했다고 평가하시였다.

농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결합하고 경영활동을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

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으로 전변된것만큼 남새비배관리와 생산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 농장원들을 남새박사, 농산박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 건물관리, 주변환경정리를 짜고드는것을 비롯하여 농장관리운영과 경영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 장천의 별천지우에 새겨진 비행운

주체104(2015)년 6월 29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상공에 한대의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전변된 장천지구의 별천지우를 한바퀴 빙 돌고나서 선뜻 떠나기 아쉬운듯 다시금 크게 선회하는 비행기.

장천의 하늘가에 새겨진 그날의 비행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그날 이곳 농장마을이 희한한 농장도시로 변모되여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히 농장에 나오시여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자신께서 비행기를 타고 보겠다고 하시였다.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농장을 찾아주신것만도 감격할 일인데 하늘에 오르시여서까지 보아주시겠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일군들은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변모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장천땅의 전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농장일군들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목이 꽉 메여올랐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장천리의 전변상을 보아주시고도 어이하여 그이께서 비행기까지 타시고 보려 하시는지 그 뜨거운 심중이 가슴에 어려와서였다.

2) 농촌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강력히 추진

장천남새농장을 문명개화된 농촌도시로, 본보기단위로, 삼지연시를 산간도시의 본보기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수준으로 꾸려주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건설, 농촌건설과 관련한 계획도 농촌살림집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건설에서도 농촌살림집건설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시고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시였다.

(1)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펼치신 농촌건설구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를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시기부터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다.

지방건설을 주체적건축미학사상에 준하여 자기 지대의 특색을 잘 살리며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먼저 표준군들을 잘 꾸려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시던 혁명령도의 나날에 제시하신 농촌건설방략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건설의 새로운 기준, 본보기로 될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창조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였다.

주체108(2019)년 10월 삼지연시안의 건설장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이라는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지방건설의 교과서적인 경험과 교훈을 쌓고 조선로동당의 지방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 하나의 혁명적도약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해 10월 중평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시와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중평온실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제시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발전국면에 들어선데 맞게 농촌진흥을 다그치기 위한 당의 구상은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주체110(2021)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농촌혁명강령을 천명한 력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아로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밝히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맛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그에 맞게 하며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하고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며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고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며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과업들이 명시하였다.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변혁을 일으키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농촌살림집들

그리고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하는것이 정책화되였다.

아직은 모든것이 어렵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방대한 투쟁과업들이 나서고있는 시기에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해 전당적, 전 국가적으로 취해진 이 중요조치는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특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농촌혁명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가 농촌진흥을 향한 전진의 기치가 되여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시대적락후성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을 일떠세우는 살림집건설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공화국의 70여년력사에 가장 엄혹한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이고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의 대변혁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속에서 전개되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간고한 사업이였다.

하지만 농촌살림집건설은 단순히 낡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시대를 창조하여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고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사업이기에 주춤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는것이 당중앙의 강렬한 지향이고 숭고한 뜻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이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시, 군건설려단조직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살림집건설과 관련한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농촌건설용세멘트를

시, 군들에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수단, 수송방법과 보관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발전의 백년미래를 내다보면서 건설을 전망적으로 과단성있게 내밀수 있는 토대가 착실하게, 확실하게 구축되였다.

당의 농촌건설정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고 당적,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이, 제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이 채택되였다.

농촌건설중앙지휘부와 각 지역별지휘부가 조직되고 해당 분과들이 능력있는 일군들로 구성되여 지방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전개할수 있게 되였다.

당과 국가의 조치에 따라 지방의 건축설계력량과 시공력량이 새롭게 꾸려지고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이 정비보강되였다.

전공실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지방의 설계기관이 꾸려지고 다면적인 기술강습과 평양건축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을 통하여 도, 시, 군의 설계력량이 질량적으로 보강되였다.

각지 설계연구소에 성능이 높은 설계수단들이 갖추어지고 설계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이 개선되였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능력있는 성원들을 위주로 시, 군건설려단들이 강화되였다.

기술학습, 강습, 기능전습, 기능공경기가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는 속에 공정별기능공대렬이 확대되고 실천을 통하여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이 향상되였다.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자급자족실현에서 진일보를 이룩하였다.

마감건재전시회와 보여주기 등을 계기로 긍정적인 경험, 기술자료들이 공유, 이전되여 지방의 자원을 최대한 개발리용하는 사업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였다.

전국적으로 백수십개에 달하는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의 건설과 생산단위들의 능력확장, 정비보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각 도들에서 경소마그네샤판생산기지들을 꾸리고 큰 규모의 타일공장건설을 내미는것과 함께 위생자기, 방수재, 외장재 등 건재품의 국산화비중을 현저히 높이였으며 살림집외부의 마감처리를 색몰탈, 석재, 인조석, 방부처리한 목재로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였다.

마감건재들이 규격화되고 품질감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건재품의 질제고에서도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

참대버드나무모심기가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사름률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됨으로써 지방건설에 절실한 목재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이처럼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책정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여 농촌살림집건설을 강력히 추진할수 있게 되였다.

❖ 새로운 살림집설계안들을 통해 본 농촌의 래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데 대한 농촌건설정책을 천명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가설계총국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의 설계에서부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하도록 하였다.

여러 설계기관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설계가들은 자기들이 그려가는 도면에 의해 당의 로선과 정책,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 설계안작성을 위한 긴장한 나날을 보내였다.

산간지대편, 벌방지대편, 해안지대편으로 나뉘여 작성된 설계안들은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안지대는 해안가맛이 나게,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맛이 나게, 벌방지대는 벌방지대맛이 나게 매 건물들의 독특한 형식을 살리면서도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도 보장하였다.

또한 단층살림집은 다락식평지붕형과 다락식경사지붕형, 평지붕형, 경사지붕형으로, 소층살림집은 독립형평지붕살림집과 독립형경사지붕살림집으로 나뉘여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력사적인 풍속,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례를 들어 해안지대의 단층살림집은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으로 지붕처리를 하였고 태풍피해를 적게 받도록 집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다.

산간지대의 소층살림집은 산을 끼고있는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지붕에 경사각도를 주어 눈석이물이 흘러내릴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설계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선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작성된 설계안들은 시, 군농촌살림집건설을 책임진 일군들과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살림집들의 건축형식이 명소들에 있는 휴양각 못지 않게 희한할뿐 아니라 비반복적이여서 아름다운 한폭의 명화를 방불케 합니다.》

그야말로 농촌살림집 및 마을설계와 형성안들에는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사회주의리상촌의 면모가 비껴있어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만 하였다.

(2) 강력히 추진되고있는 농촌살림집건설

조선로동당의 농촌건설강령실행을 위한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조직사업이 이루어지는 속에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였다.

당의 사상이 맥동치고 혁명열, 투쟁열을 증폭시켜주는 구호, 표어, 붉은기, 대형직관판, 속보들이 건설장들을 뒤덮고 참신한 선동대활동과 혁신자축하모임, 방송선전이 진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각 도, 시, 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농촌살림집건설에서 본보기창조와 일반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일군들은 긴밀히 련계하면서 매해 계획된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과 시설물설계를 지대별, 지역별에 따라 표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게 완성하였으며 농촌마을배치계획안과 조감도작성도 다그쳤다.

산간지대와 벌방지대, 해안지대의 특성에 맞는 본보기농촌마을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대책들이 취해졌다.

시, 군들에서 능력이 큰 골재생산기지들을 꾸리고 강재, 목재 등 자재확보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속에 각지에서 짧은 기간에 수천t능력의 세멘트보관고들을 일떠세웠다.

블로크성형기가 전국에 도입되여 규격화가 보장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이 적극 활용되여 블로크찍기가 빠른 시일에 완결됨으로써 세멘트를 허실없이 리용하며 살림집건설을 적극적으로 내밀수 있게 되였다.

건설의 기계화비중이 제고되여 공사성과가 확대되였다.

각 도들에서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의 전시회가 준비있게 진행되고 앞선 성과와 경험이 널리 일반화되였다.

건설려단들에 화물자동차, 혼합기, 철근가공설비 등 건설장비들이 투입되고 실용적인 측정수단, 기공구들이 적극 창안도입되였다.

수도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본보기로 될데 대한 당의 뜻을 깊이 간직한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루기 편리하고 능률적인 장비와 기공구들을 그쯘하게 갖추고 농촌살림집건설을 본때있게 밀고나갔다.

과학기술력이 증대되여 건설물의 질보장에서도 개선이 이룩되였다.

건축물의 구조적특성에 맞는 공법상요구를 구현하여 내외부미장과 지붕공사의 질적수준을 높이였으며 기능공들을 위한 기술강습에 힘을 넣어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갔으며 목재를 거의나 쓰지 않는 조립일체식철근콩크리트합성층막공법을 창안활용하고 기둥식기중기들을 제작리용하여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인것은 농촌살림집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과학기술력의 일단이다.

이 귀중한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철저히 의거해나갈 때 어느 지역에서나 흥하는 앞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농장마을들의 원림록화가 실현되여 농촌의 면모와 환경이 한층 일신되였다.

지역적특성과 정취를 살려주는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가 화초, 지피식물과 어울려 농촌마을의 아담한 풍치를 돋구었다.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질 행복의 새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한몫 단단히 할 각오를 안고 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련대적혁신을 일으켰다.

련관단위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건설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철도운수부문과 륙해운부문에서도 증송의 동음높이 방대한 물동량들을 전격적으로 수송하였다.

농촌살림집건설과정에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덕과 정이 숨결처럼 흐르는 사회의 대풍모가 활짝 꽃펴났다.

당의 농촌건설구상에 청춘의 리상을 따라세우며 건설려단에 탄원한 대학졸업생들, 떳떳치 못한 지난날과 결별하고 건설현장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며 어렵고 힘든 일의 선봉에 선 녀맹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인민군군인들도 군민협동작전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재수송과 측량, 토량처리, 기초콩크리트치기, 벽체축조 등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면서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였다.

수만장의 블로크들이 큰물에 침수될 위험이 조성되자 한밤을 지새우며 안전지대로 운반해준 군인들, 표창휴가기간을 농촌살림집건설장에 바친 병사들의 소행은 군민대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이였다.

각지 농촌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본보기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뚜렷한 실체를 드러냈으며 농촌살림집건설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힘차게 진행되였다.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 모습을 펼치며 나라의 곳곳에 사회주의농촌마을들이 일떠섰다.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변모된 농장마을들이 새 생활의 보금자리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을 기다리였다.

(3) 새집들이계절

새집들이계절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을 전하며 언제부터인가 전해지는 말이다.

새집들이계절!

그 어떤 사전에도 오르지 않은 말이지만 조선인민의 마음속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말이다.

날에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들을 듣는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저도모르게 울려나온 약동하는 시절의 이름이다.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처럼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모습을 펼치며 전국각지에 일떠선 사회주의문화농촌마을들에서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이다.

오늘은 저 두메산골군 제일막바지 마을에서, 래일은 분계연선마을, 또 그 다음날엔 동서해안마을들에서 새집들이했다는 소식이다.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울리는 새집들이소식이다.

새집들이소식이 하 많아서 10여개마을의 새집들이소식을 한 지면에 함께 싣기도 한다.

조선지도를 들여다보면 마치 온 나라의 시, 군들에서 눈부신 채광이 빛발치는것만 같다. 이제 더 높이 타오를 농촌혁명의 거세찬 불길의 귀중한 불씨들이고 더욱더 속력을 높이게 될 농촌진흥의 기치들이다.

주체111(2022)년 봄에 평양시 경루동에 솟아나 인민들과 상봉한 다락식주택이 이제는 농촌문명을 대표하는 살림집으로 되였으며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의 주인들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 만세, 사회주의 만세의 격정어린 목소리들이 심심두메에서도, 옥야천리에서도, 바다기슭에서도 울리고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도래하여 새집들이계절이 생겨났다.

봄을 알리는것이 꽃이고 겨울을 알리는것이 눈과 얼음이라면 새집들이계절을 알리는것은 인민의 목소리이다. 인민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라야만 진정한 새시대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새집들이경사로 흥겨운 농악소리에 귀기울이고 웃음이 차넘치는 춤판에 몸을 잠그어보면 참으로 열렬한 인민의 진정을 안아볼수 있다.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이런 훌륭한 살림집이 저의 집이라는것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새집들이소식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 멋있는 집이 저에게까지 차례질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당의 농촌혁명강령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성실한 땀을 바쳐 대지를 가꾸는 농민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믿는데 습관되여있다. 거짓도 꾸밈도 없는 농업근로자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는 엄숙한 선언으로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고있다. 밤깊도록 현대적인 살림집창가에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농촌의 새 모습으로부터, 로동계급이 만든 농기계들이 황남의 전야를 누비는 새 풍경으로부터 지방이 변하는 시대는 시작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새시대의 새 기운이 그 어느곳에서나 약동하고있는 시절이다.

조선에서는 새집들이계절에 인민들은 실지 피부에 와닿는 변화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절감하고 멀리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대의 변천을 감득하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은 당과 국가가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준 새로운 보금자리들이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어디서나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새 집으로 이사한다니 제일 좋아하는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농업근로자들의 말이다.

환하게 트인 놀이터의 그네들에 매여달리는 어린아이들의 청맑은 웃음소리, 희한한 소층살림집의 창가에서 웃음짓는 행복에 겨운 소년단원의 얼굴에 비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은 참다운 보금자리만이 줄수 있는것이다. 어른들도 흥그러운 마음으로 초소에 선 자식들에게 새 집의 사진을 찍어보내고 아들딸 시집장가보낼 생각으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줄 모른다. 이제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누구나 마음속으로 깊이 다지고있다. 자식대가 아니라 손자대까지 물려줄 새 집이라고 무척도 기뻐하는 농장원들의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다.

한생 땅과 함께 늙어온 농업근로자들의 흐뭇한 웃음도 기쁜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것은 대를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래일을 가꿔가야 할 미래의 주인들이 터치는 밝은 웃음이다. 농촌살림집들마다에 귀중한 희망과 꿈과 소원이 뿌리를 내리고있다.

보금자리만 있으면 식솔도 늘어나고 재부도 창조된다. 여기서부터 모든것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커가는것이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농업생산열의를 비상히 증대시키는데서 농촌살림집은 천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이는 농업근로자들이 세세년년 물려갈 귀중한 집인 동시에 사회주의농촌의 영원한 보금자리이다.

새집들이경사는 래일에로 향한 더 힘있는 도약의 발판이며 장쾌한 돌파구이다.

이제 조선에서는 보다 분명한 자신심과 지금껏 축적한 경험과 힘으로 련련히 새로운 전진의 보폭을 내짚을수 있게 되였다.

새집들이계절에 사람들의 통이 커지고 보는 눈이 높아졌다.

자기 땅에서 자기 힘으로 못할것이 없다는 각오와 자신감에 넘쳐있는 인민, 현대적이고 문명한 환경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는 농업근로자들…

살림집이 일떠서는것과 동시에 인민이 성장하고있는것은 농촌혁명강령이 이루어내는 커다란 승리이다.

농촌혁명강령실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약동의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농촌이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나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돌파구를 열었으며 모든 전선들에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혁명은 전반적형세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되였으며 새로운 상승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의 이 실질적인 변화는 자신의 모든 심혈과 로고와 열정을 다 바쳐 빛나는 새시대를 안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는 멀고 가까운 곳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집들이계절에 대한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소박하나 꾸밈없는 례찬이다.

농촌마을들에서 맞이한 새집들이 경사

새집들이계절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시였다.

정녕 조선의 새집들이계절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 그 뜨거운 열화의 정에 의해 밝아온 위대한 시대의 따사로운 봄이다.

4. 사랑의 요람, 원아들의 보금자리

예로부터 설음중의 설음은 고아의 설음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고아들의 운명은 길가의 막돌같다고 했다. 그래서 고아라는 말은 불행의 대명사처럼 되였고 그들의 운명을 론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다. 고아들의 불행한 운명을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조그마한 몸을 담을 거처지도 없는 그들의 운명이다. 그래서 《집없는 아이》라는 소설도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조선에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있어도 《고아》는 없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잃었어도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이의 크나큰 사랑속에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이 지면에서는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행복상을 전하려고 한다.

1) 육아원과 애육원

육아원과 애육원, 여기에서는 태여나서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이 제일로 필요한 시기의 원아들이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원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육아원과 애육원을 건설하는것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사랑속에 각도에 훌륭한 육아원, 애육원들이 새로 일떠서 원아들은 보다 훌륭한 환경과 조건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1) 본보기로 꾸려주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새로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은 보기에도 아이들의 동심을 속속들이 반영한 건물, 아늑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눈여겨볼수록 한해에 세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며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 아이들의 궁전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혈과 로고가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2월 3일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였다.

먼저 애육원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한품에 꼭 안으시고 한동안 애들의 볼을 따뜻이 쓰다듬어주시며 몇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육친의 사랑과 정을 어린 가슴에 받아안은 아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앞에서 노래 《원수님 고맙습니다》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따라 고운 옷도 입혀주시고 맛있는 사탕, 과자, 물고기와 과일, 꿀도 보내주시여 세상에 부럼없다고,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아이들은 목청껏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이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육아원을 돌아보시였다.

애기방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자는 애기들의 모양을 웃음속에 보시면서 태여난지 얼마나 되였는가를 물어주시였으며 놀이

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서는 말도 시켜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세쌍둥이들과 마주앉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방에 들리시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가를 알아보시고 육아원에서도 애육원에서처럼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있는데 대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볼이 오동오동하다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육아원, 애육원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각 도와 직할시들에 육아원, 애육원들이 설치되여 운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계발, 체력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도와 직할시들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본보기를 정하고 그를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으며 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 훌륭한 교육자,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에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넘쳐나는 말씀이였다.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정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새로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서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몸소 현지에 직접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건설이 한창이던 주체103(2014)년 6월 24일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8월 12일 또다시 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지식과 넓은 안목으로 시공자들과 건설자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하자는것이 나의 의도이다. …

이처럼 친부모도 줄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멋쟁이 건축물로 솟아나게 되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250여개의 방들이 꾸려져있으며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공원,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오락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되였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해 10월 25일 새로 꾸려진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소, 볼수록 희한하고 황홀하오, 시대의 걸작품이요라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완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육실, 교양실, 잠방, 세면장, 놀이장, 자연관찰실 등을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이 마음껏 뛰여놀수 있는 운동실과 물놀이장도 높은 수준에서 건설했으며 해빛쪼이기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내정도 아담하게 조성해놓았다고, 계단란간도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다치지 않도록 설치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의 신체조건에 알맞는 식탁과 의자들을 놓은 식사실이 마음에 든다고, 당에서 보내준 견본품대로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보기 좋고 쓰기 편리한 집기류들을 그득히 장만해놓았다고, 주방설비들도 현대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과, 외과, 치과 등을 갖춘 치료병동과 리발실도 흠잡을데 없으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생활실들과 복도들에 그림장식을 부각하여 붙여놓으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다.

생활필수품과 식료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없는것이 없다고, 마치 백화점같다고 하시였으며 세탁설비도 최신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외에 건설해놓은 자전거주로와 교통공원을 원아들의 놀이터인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교통규정,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교양하는 장소로 특색있게 꾸려놓았으며 호수에 정각까지 세워놓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원아들이 궁궐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였다고 다시금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이 땅에서 울리고있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끝없이 밝고 창창할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후대사랑은 원아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활환경이 곧 교육과정으로 되게 꾸려진 훌륭한 궁전에서 원아들이 자라나게 되였으니 그들의 수준이 왜 올라가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앞으로 원아들속에서 훌륭한 일군이 많이 나올것같다고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것을 다 갖추어준다고 하여 그들이 저절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훌륭히 키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부모없이 자라다보니 교양을 덜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품들여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이 원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은 가정교양단계에 있는 철부지어린애들이므로 그들을 교양하자면 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교육단계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고 교양하는데 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게 하고싶은 부탁은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 그들의 마음속에 단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도록 키워달라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 새로 꾸려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은 단순한 보육교양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궁전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 와서 좋다고 뛰여노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머지 않아 새 집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뛰여놀 원아들의 밝은 모습이 한눈에 어려오시는듯 그이의 존안은 태양과도 같이 밝았다.

그 태양의 축복속에 얼마후 원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통채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들의 사랑, 온 나라의 사랑을 다 받으며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2) 동해기슭에 새로 솟아난 원아들의 보금자리

부모없는 아이들을 혁명의 미래로,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울이시는 사랑과 정은 정녕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가장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원아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땅의 동해기슭에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멋쟁이궁전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하도록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가 강원도의 인민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이 한창이던 주체104(2015)년 2월 10일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여 육아원, 애육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으신 때는 기초굴착을 끝내고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던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한축선상에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렇게 건설하면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탁아소로부터 중학교 전 과정을 마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대상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건축물의 질을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설계상, 공법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며 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용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환경정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변의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 록음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건축공사와 운영준비를 병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류, 교구비품 등은 물론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이 착용할 단체복들도 높은 수준에서 제작하며 관리성원들을 선발하여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원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 표준설계를 각 도들에 내려보냈다고 하시면서 해당 지역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과 얼굴이 살아나게, 주변환경과 수용능력에 맞게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건설력량을 더 투입하여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건설은 태양절까지,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은 전승절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건축물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강원도의 인민들과 합심하여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원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주체104(2015)년 4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물외부만 보아도 멋있다고, 두달전에 이곳을 돌아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골조만 서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두었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육실,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모든 방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시공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모든 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을뿐 아니라 요소요소들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들의 창발성, 자립성을 키워줄수 있

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중앙에서 내려보내준 표준설계에 준하면서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하였다고, 특히 애육원의 원형관통홀을 새롭게 형성한것을 비롯하여 설계와 시공을 특색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내외부가 볼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잘 꾸리고 교구비품과 집기류, 운영물자 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운영준비를 착실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이 일떠섰다고,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뛰여놀게 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아동절인 주체104(2015)년 6월 1일 또다시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시였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였으면, 얼마나 원아들을 귀해하시였으면 이날까지 원산육아원, 애육원에 세차례나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으신 때는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이 있게 될 바로 몇시간전이였다.

그처럼 바쁘시였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아동절에 우리 원아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새 집을 다시 한번 보고싶으시여 또다시 찾아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정면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바라보시면서 밝고

정중하게 잘 모시였다고, 원아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원아들이 살게 될 궁궐같은 새 집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하여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준공식을 하자고 하였는데 건설자들이 당에서 준 과업대로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모든 요소요소를 흠잡을데없이 꾸려놓았으며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필요한 교구비품들과 운영물자 등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애육원식당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들과 집기류들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으며 원자재도 그득히 쌓아놓았다고, 원아들이 여름에는 선선하게, 겨울에는 뜨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아이들의 집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문주도 특색있게 세워놓았으며 원아들이 마음껏 뛰여놀수 있는 야외놀이장과 교통공원도 잘 건설해놓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잘 먹이고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과 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원아들에게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교육과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건물 및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보건위생학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등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운영을 잘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일떠설 때마다 온 나라가 밝아지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

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었으며 강원땅에 경사가 났다고 하시면서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준공식장에 펼쳐진 류다른 화폭

주체104(2015)년 6월 1일에 진행된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은 만사람의 눈길을 끄는 류다른것이였다.

색동옷을 곱게 떨쳐입고 귀엽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준공테프를 끊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굽혀 테프를 늘이고서있는 왕별을 단 장령과 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 실로 준공테프를 끊는 의식이 생겨난 이래 처음 보는 광경이였고 감동적인 모습들이였다.

이 감동깊은 화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주신것이였다.

앞에서 이야기되였지만 국제아동절인 주체104(2015)년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오늘이 국제아동절인데 원산육아원, 애육원준공식을 빨리 하고 원아들을 입사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이날 준공식장에 이처럼 류다른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준공테프를 끊은 행복동이들은 뭇사람들의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섰다.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준공테프를 끊는 원아들

2)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애육원을 마친 원아들을 기다리는 보금자리가 있다.

초등학원이다. 초등학원을 졸업하면 또 중등학원이 그들을 맞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아이들의 궁전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꾸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전국 도처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이 일떠서니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였다고 말한다는데 원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딸입니다. 우리 당은 아들딸부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아원, 애육원건설과 함께 초등학원과 중등학원건설사업도 함께 펼쳐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1)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중등학원

주체105(2016)년 7월 3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 만사람의 심금을 또다시 울리였다.

평양중등학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이다.

각 도들에 원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을 멋쟁이궁전들로 일떠세워주신데 이어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본보기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평양중등학원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연건축면적이 만여㎡에 달하고 수십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들이 있는 교사,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기숙사, 관리건물, 보조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을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중등학원을 찾아주신 날은 주체105(2016)년 7월 2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잘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교실들마다에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비품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을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게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과 실내수영장, 다기능체육홀을 멋들어지게 꾸려놓았으며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기숙사도 흠잡을데없이 건설했다고 말씀하시였다.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놓았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에서 원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학원 교직원들은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식료품과 학용품,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 원아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사업 등에 힘을 넣으며 전국의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사이에 교육교양과 학원운영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평양중등학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몇해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평양시에서 초등학원건설도 당에서 정해준 날자에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의 모범을 본받아 각 도들에서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다음해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된것만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원아들을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그들의 글읽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 준공식이 주체105(2016)년 7월 18일에 진행되였다.

평양중등학원

이날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응축되여있는 교사와 기숙사,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 운동장을 비롯하여 멋쟁이학원의 전경은 참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각종 교구비품들을 갖춘 교실과 실내수영장, 다기능체육홀 등에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육친의 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참가자들은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면서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준공식에 이어 궁궐같은 새 보금자리에 입사한 원아들은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에 되였다.

❖ 류다른 등교길

부모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동무들과 함께 학교로 가던 등교길에 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을것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등교길이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학원은 그대로 학교이고 집이여서 원아들에게는 등교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평양중등학원의 원아들에게는 류다른 등교길이 있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기숙사앞에서부터 학급별로 줄을 지어 교사에 들어선다. 붉은넥타이를 맨 원아들은 자랑을 뽐내며 줄을 지어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고 고급반원아들은 맏아들답게 가슴을 쭉 펴고 의젓한 자세로 교실로 들어간다.

기숙사마당에서 원아들을 손저어 바래주는 관리원들, 과외교양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얘들아, 10점을 맞고 돌아오너라.》, 《선생님에게서 칭찬을 받아라.》

실로 학원의 모든 교직원들은 원아들의 친부모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게 하는 등교길풍경이다.

먼 후날 원아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마련된 류다른 등교길을 아름답게 추억할것이다.

(2) 중등학원과 나란히 일떠선 평양초등학원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따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평양중등학원이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의 본보기, 표본으로 일떠선데 이어 평양초등학원도 훌륭히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7월 2일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초등학원건설도 와닥닥 달라붙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총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집중하는 속에서도 평양초등학원건설만은 중단없이 내밀도록 은정어린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짧은 기간에 연건축면적이 7 870여㎡이고 교사, 기숙사,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초등학원을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2월 1일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의 교사를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하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였다고,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으로 되였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교직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여 그들의 인격형성과 인간생활

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양을 구체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홈페지를 통하여 학원운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다른 학원들과 교환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평양초등학원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고,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소리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 평양중등학원 원아들과 교직원들,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돌아보신 며칠후인 2월 5일 원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배움터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초등학원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교직원, 학생들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준공사를 들으며 원아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혈과 로고가 되새겨져 누구나 눈굽을 적시였다.

참으로 평양초등학원은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솟아난 원아들의 멋쟁이궁전이다.

평양초등학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평양중등학원에 이어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수도에는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완벽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준공식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 원아들의 가족사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격동시킨 사진문헌이 있다.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주체106(2017)년 2월 2일부 《로동신문》에 모셔진 사진문헌이다.

아이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기신 기념사진들은 많고많으며 가슴뜨거운 사연 또한 그 얼마인지 모른다.

2만여명의 소년단원들과 무려 스무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찍으신 기념사진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철부지 유치원꼬마들과 무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찍으신 기념사진도 있다.

허나 평양초등학원에 펼쳐졌던 화폭은 만사람의 가슴을 깊은 감동과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뵙고 너무 기뻐 팔을 높이 쳐들고《만세!》를 웨치는 학생도 있고 남보다 키가 작은것이 안타까와 발끝을 힘껏 돋구는 학생도 있다.

이 세상 행복은 자기가 다 독차지한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온몸을 맡기고 밝게 웃음짓는 남학생, 위대한 어버이의 제일 가까이에 선 남다른 행운을 자랑하고싶어 친한 동무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녀학생도 있다.

그 열광의 대하를 넓고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해빛같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앞에서 한가정마냥 웃고울며 찍은 기념사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원아들이 단란한 한식솔이 되여 찍은 가족사진이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원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한가족, 한식솔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원아들이 찍은 기념사진은 아버지와 아들딸들,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찍은 영원한 가족사진인것이다.

5. 로인들의 보금자리

누구에게나 행복의 보금자리인 집이 필수적이지만 특히 년로보장을 받은 로인들에게 있어서, 그중에서도 자식들,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들에게 있어서 집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삶의 터전이다.

언제인가 외국의 어느한 출판물에 이런 자료가 실린적이 있었다.

이 나라에는 《자립지원시설》이라는것들이 있는데 낡고 오래된 허름한 목조건물인데다가 초보적인 화재방지대책도 서있지 않아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이 일반살림집보다 눅은것으로 하여 가난한 고령자들에게는 그곳이 하나의 《별천지》로 되고있다고 한다. 몇해전 어느한 《자립지원시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속에서 몇명의 로인들이 겨우 살아났지만 누구도 관심을 돌려주지 않아 그들은 거처지를 찾아 떠돌이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로인들이 집을 빌리자면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보증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의지가지할데 없는 늙은이가 사망하는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문제때문에 누구도 보증을 서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빈곤자, 고령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가난한 로인들이 거처지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퇴거표류》현상이 더욱 우심해지고있으며 《나이먹어 퇴직후의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하나의 류행어처럼 나돌고있다고 한다.

너무도 대조되는 현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로인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베풀며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고있다.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는 년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주체96(2007)년 4월 2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여 년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도 마련되게 되였다.

그 혜택속에 조선에서는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어머니당에서는 그들이 백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고있다.

년로자들의 보금자리로부터 그들의 건강과 생활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그토록 세심히 돌보아주는 인민의 나라가 사회주의조선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인 시책이 실시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워주는 기풍이 확립되여온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십년전에 벌써 승호군 만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면서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돌봐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가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사회적으로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이 불편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수 있게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년로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주택문제만 보아도 로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세대는 다부세대라고 하여 국가에서는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이 따로 있는 여러칸짜리 문

화주택들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며 돌볼 자식이 없는 로인들은 국가가 궁궐같은 양로원을 지어주고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어 자식가진 로인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복된 삶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의 행복상을 여기에 다 줄수 없기에 이 지면에는 년로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 양로원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전하려고 한다.

평양양로원

1) 도마다 일떠선 로인들의 궁전

주체104(2015)년 8월 7일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어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궁전같은 새 집으로 이사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는데 이날은 원아들의 궁전과 나란히 한 멋쟁이건물에 년로자들이 이사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진것이다.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합각지붕의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은 침실과 식사실, 도서실, 운동실, 치료실, 내정을 비롯하여 로인들의 건강장수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는 멋쟁이건축물이다.

그 멋쟁이건축물로 이사하는 보양생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은 정녕 감동적인 화폭들이였다.

기쁨이 커갈수록 행복의 새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보양생들모두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평범한 자기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 온 세상이 부러웁게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만세소리가 그들의 심장속깊이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정녕 평양양로원에 깃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과 정은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주체104(2015)년 3월 5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신 날이다.

이날은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이였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절날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평양시양로원건설장에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로원을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년로자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평양시양로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자면 늙은이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생활조직과 정서생활, 몸단련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보양생들이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생활할수 있는 침실, 식당은 물론 적당한 운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운동실, 오락실, 도서실, 영화관도 손색없이 꾸려주어야 한다. 보양생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는 치료실도 꾸리고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를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잘 건설해주며 그들이 산보도 하고 야외식사도 할수 있게 내정을 특색있게 조성해주어야 한다.

로인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도 하며 장수할수 있게 수경온실을 건설해주고 터밭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평양시양로원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도입하며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을 비롯하여 환경정리를 잘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이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양로원의 외부 및 내부형성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평양시양로원이 일떠서는 곳은 당에서 아끼던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표준으로 꾸림으로써 지방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양로원들을 잘 건설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

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평양양로원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건축물, 사랑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이해 8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양로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으며 평양양로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평양양로원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볼수록 멋있다고, 모든 요소요소를 보양생들의 신체적,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번에 이곳을 돌아보면서 지시한대로 침실에 대한 보양생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온돌침실과 침대침실을 구색이 맞게 꾸려놓았고 식사실도 가정적분위기가 살아나게 시공하였으며 늙은이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단설치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리발실, 미용실, 목욕탕, 치료실을 비롯한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들도 손색이 없고 도서실, 운동실, 오락홀도 보양생들이 문화정서생활과 몸단련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평양양로원의 내정이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물의 동쪽과 서쪽을 련결하는 외랑을 건설해놓았을뿐 아니라 야외식사와 산보도 할수 있게 내정을 꾸려놓으니 보양생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양생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도 할수 있게 양로원에 현대적인 수경온실과 터밭도 꾸려놓음으로써 그들의 건강장수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양로원에 지열에 의한 랭난

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온도보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을뿐 아니라 야외휴식터조성과 주변에 대한 원림록화사업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양로원이 건설됨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년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년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평양양로원을 본보기로 하여 도마다 양로원들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2) 끝없이 울리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

사회주의조선에서 년로자들이 즐겨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제목은 《세월이야 가보라지》이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

이 노래소리가 제일 많이 울리는 곳은 아마도 양로원일것이다.

우에서 로인들의 보금자리건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보금자리에서 로인들이 어떤 삶을 누려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먼저 평양양로원을 찾아가보았던 이야기부터 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보금자리에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이 새살림을 편 그날로부터 수년세월이 흘렀다.

평양양로원에서는 부르고불러도 진함없는 고마움과 감격의 노래소리,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리여가보니 125호실이였다.

125호실은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평양양로원을 찾으셨을 때 들리시였던 호실이다.

그곳에서는 여러명의 로인들이 윷놀이를 하고있었다. 로동당의 은덕으로 인생의 로년기에도 청춘을 노래하는 로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이 호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른다오.》

이 호실주인의 한사람인 나이가 아흔살이 넘은 정춘실로인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호실의 주인들인 박군숙, 정춘실, 김현숙로인들은 고령이였지만 하나같이 건강해보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당의 은정속에 로당익장하는 년로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듯싶었다.

그 복받은 생활속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가를 125호실의 주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었다.

로인들은 호실의 여기저기를 소개하였다.

온돌침실의 방바닥에 깐 돗자리며 폭신하게 만든 방석과 등받이, 각종 전자제품들과 발안마기…

정말 호실의 어느 하나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다며 로인은 옷장문도 활짝 열어보이였다.

옷장에는 솜옷이며 모자, 여름옷, 운동복과 조선치마저고리가 주런이 걸려있었고 한켠에는 봄가을내의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박군숙로인이 발돋움을 하며 가리키는 옷장의 맨 웃쪽에는 세타들과 올해에 새로 또 받아안았다는 솜옷도 있었다.

《미처 다 입어볼새도 없이 새옷들을 받아안군 합니다. 어느 늙은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옷들을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외우는 김현숙로인의 두눈이 어느새 붉게 상기되였다.

자기의 심정도 다를바 없다는듯 이번에는 정춘실로인이 갖가지 신발들이 꽉 차있는 신발장이며 화장품들이 놓여있는 화장대를 가리키며 당의 은정속에 매일매일 젊어지고있다고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끼니때마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보양음식들을 차려주니 정말 자기들처럼 복받은 년로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고 터놓는 보양생들의 이야기이며 철따라 첫물과일은 제일먼저 먹어보고 명절이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가슴가득 안겨지군 한다는 이야기, 새 집에서 받아안은 새옷만 해도 수십벌이나 되여 옷에서 옷을 골라입고 음식에서 음식을 골라먹는다는 그들의 이야기…

이날 나이많은 로인들의 생활상편의와 건강, 감정정서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각별히 마음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전하는 보양생들의 이야기는 온실과 터밭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양로원에 보양생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할수 있게 터밭과 온실을 꾸려주어야 한다고, 그들이 터밭과 온실에서 적당히 일하면 건강에도 좋을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대로 보양생들은 누구나 남새를 가꾸었다.

아직 날씨가 찬 2월에도 이곳 보양생들은 자기들이 온실에서 키운 오이를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도 보내주었다고 한다.

앞방에도, 뒤방에도 어머니당의 사랑이 가득차있고 구내의 산보길에도, 정원의 나무 한그루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보다 더 따뜻하고 훌륭한 집, 삶의 보금자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이날 95살 난 김정옥로인은 이렇게 목메여 말하였다.

《따사로운 해빛넘치는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보양생모두의 심정이였다.

이번에는 조선에서 제일 산골도인 량강도양로원을 찾았던 이야기를 여기에 실으려고 한다.

그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온 나라가 환희로 설레이던 주체110(2021)년 1월 1일 양력설명절의 아침이였다.

이날 이곳은 명절분위기로 흥성이였다.

먼저 1층 9호실을 찾아 《새해를 축하합니다!》하고 인사하자 머리에 백발을 얹은 할머니들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활달하고 씩씩하게 축하의 인사로 화답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김형권군에서 수십년간 리발사로 일하였다는 호실장할머니의 앞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나이가 97살 되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말년에 궁궐같은 집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사니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덕에 보답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편리하게 꾸려진 오락장에서 로인들은 장기와 윷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나이가 70살 남짓해보이는 로인이 《그러면 내가 쓰지. 장훈!》이라고 호기있게 소리치며 련거퍼 장훈을 들이대는데 정말 볼만 하였다. 그런가하면 식당에서는 점심식사준비가 한창이였다.

고기국, 물고기반찬, 떡, 삼색나물, 오이초침, 사과 등 명절음식의 가지수를 꼽자니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다.

우리가 양로원을 돌아보고 문을 나설 때였다. 성의껏 마련한 물자를 가지고온 여러 단위의 일군들이 로인들에게 세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로인들은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희한한 집에서 모두의 축복속에 새해를 맞으니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속격정을 터치는 로인들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진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근심걱정을 모르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양로원의 주인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으랴.

☆ 최고사령관의 사랑의 명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이시야말로 후대들과 년로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자나깨나 마음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격정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6. 합숙생들의 보금자리

합숙은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학교와 일터들에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먼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합숙이 마련된다. 합숙은 합숙생들의 보금자리이다. 그 보금자리가 어떻게 꾸려지는가 하는것은 혈육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합숙생들 누구에게나 커다란 관심사로 된다.

인민들 누구에게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합숙생들에게도 궁궐같은 합숙들을 건설하여 안겨준다.

그중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이 안겨사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 한두편을 이 지면에 담으려고 한다.

1)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이 끝없이 흐르는 대동강반에 우리 로동계급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일떠섰다.

마치 두팔을 쭉 벌리고 방직공장 로동계급을 어서 오라 부르는듯 건물의 양상은 마치 정다운 어머니품 같기도 하다.

가는곳마다 보는것마다 황홀경을 이룬 로동자합숙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경탄을 터치군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이 훌륭히 건설한 합숙생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로동자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였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어머니당의 사랑이 공장로동계급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에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침으로써 훌륭한 로동자합숙을 짧은 기간내에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주체103(2014)년 4월 29일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선 합숙은 침실과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도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로동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홀과 복도의 층고를 설정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벽색갈도 안온한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1호동 1층 4호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벽장을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벽장이 세칸으로 되여있는데 아래칸에 이불을 넣을수 있게 한것은 좋은데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가 짧아 치마저고리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접힐것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들의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합숙생들이 침대에서 잠을 잘수 있게 낮은 침대를 만들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할것 같다고, 침대밑에는 빼람을 만들어주어 거기에 필요한 사품들을 넣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목욕탕에 들리시여서는 욕조안의 물에 친히 손을 잠그어보시며 합숙생들이 리용할 목욕물의 온도도 가늠해보시였으며 도서실을 돌아보시면서는 합숙생들이 도서실에서 여러가지 책을 많이 보면서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고, 목욕탕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하시였으며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서는 마치 무릉도원같다고 기뻐하시였다.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생전에 인민생활문제와 직결된 이 공장을 그리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숙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연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새로 훌륭히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이 주체103(2014)년 5월 3일에 진행되였으며 이날 합숙생들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입사하였다.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의 주인이 된 합숙생들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젖어들었으며 온 공장구내는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합숙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새 합숙에 입사하는 합숙생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으며 로동자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돋구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입사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온 합숙생들의 가족들이 입사하는 로동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만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랑의 궁전에 들어서는 합숙생들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조선로동당이 베푸는 은덕이 너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을 모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황홀경을 펼친 합숙의 곳곳에서 로동자들의 격정이 세차게 분출되였다.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전기난방화된 방들과 녀성로동자들을 어서 빨리 멋쟁이로 내세우고싶은듯 활짝 문을 열어놓은 정갈한 미용실, 각종 도서들이 가득찬 도서실과 상점,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공원에서도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한껏 흘러넘치였다.

온 세상이 부러웁게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만세소리가 그들의 심장속깊이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직포공 조경애는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면서 5.1절에는 성대한 연회장에서 생일을 쇠고 오늘은 또 궁전같은 합숙에 보금자리를 폈으니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있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했고 연사공 김봄향의 아버지, 조방공 김향미의 어머니를 비롯한 합숙생들의 부모들은 딸자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합숙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한달음에 달려왔다, 와보니 말이 합숙이지 호텔이면 이보다 더 훌륭하겠는가고 감탄을 표시하였다.

합숙생들은 천짜는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런 황홀한 궁전을 마련해주시였으니 분에 넘치는 그 은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를 백날, 천날로 주름잡아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서 끝없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가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굴지의 천생산기지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현실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들을 제일로 여기시며 천만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이 안아온 경사이며 로동계급이 주인된 우리 세상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료리실습장

사회급양부문도 상업대학도 아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로동자합숙과 나란히 멋진 료리실습장이 일떠서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료리실습장

몇해전 12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방직공처녀들이 새로 꾸려진 로동자합숙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합숙생들이 시집갈 준비도 하게 할겸 료리실습을 할수 있는 료리실습장을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처녀들이 해달라는것은 다 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료리실습장의 형성안도 지도해주시고 나라의 권위있는 건축설계집단을 동원시켜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건축물로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버이사랑을 가슴에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105(2016)년에 덩지큰 료리실습장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2층으로 된 료리실습장에는 10여개의 료리실습실들과 식료가공실, 부식물창고 그리고 수천점의 집기류와 주방도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합숙생들이 료리실습을 하기에는 그저그만이다.

명절날, 휴식일이면 료리실습장은 합숙생처녀들의 열기띤 료리실습으로 흥성거린다.

방직공장처녀들은 이렇게 공장에서 천짜는 방법도, 음식만드는 방법도 다 배우며 날마다 행복속에 일하며 생활하는것이다.

2)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된 따뜻한 보금자리

경공업의 본보기공장, 중추공장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도 로동계급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새로 꾸려졌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구내에 로동당시대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희한하게 건설된 로동자합숙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속에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주체105(2016)년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위한 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연건축면적이 8 910여㎡에 달하고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침실 등으로 이루어진 7층짜리 로동자합숙을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주체106(2017)년 1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려놓은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몸소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로동자합숙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과 외랑으로 련결된 건물외벽에 로동자합숙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붙이였는데 공장로동자들의 집이라는것이 잘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의 특성에 맞게 홀의 공간을 잘 꾸렸으며 복도의 층고도 알맞춤하다고, 벽색갈도 아늑한감을 느낄수 있게 잘 선택하였다고 기뻐하시였으며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이 정갈하며 장식품들과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 그릇가지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같은 식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게 꾸린 체육 및 오락실도 흠잡을데 없으며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진 침실들에 책꽂이,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추어놓았는데 녀성들이 연지곤지로 단장하며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자합숙을 녀성들의 심리에 맞으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했다고, 가구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지열에 의한 난방보장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합숙생들이 한겨울에도 뜨뜻한 곳에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로동자합숙까지 일떠섬으로써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였다고, 일군들은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상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경공업부문의 중추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3) 새 집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처녀들의 마음

조선의 국경도시 신의주시에 있는 신의주방직공장에도 로동자합숙이 새로 일떠섰다.

새 보금자리의 주인들이 새살림을 편 때로부터 지금까지 로동자들의 궁전에서는 고마움과 감격의 노래소리,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들은 말한다.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시간이 지날수록, 날과 날이 흐를수록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고.

실지로 그랬다. 합숙의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복도며 홀, 호실들과 도서열람실은 물론 수영장, 운동실,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그쯘히 갖춘 방직원 등 합숙의 모든 곳, 모든 시설들이 처녀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너무도 정갈하고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합숙생들에게 있어서 희한하고 황홀하게 꾸려진 합숙은 고향집의 따스한 온기와 정, 사랑이였다.

하루일을 마치고 합숙에 들어서면 호실의 따스한 이부자리에도, 전실과 세면장의 비품 하나에도 그리고 운동실과 료리실습장에 갖추어진 여러가지 기재들과 도구들에도 고향집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이 스며있는것만 같았다. 아니 고향집보다 더 따스한 사랑이 그들을 품어주었고 친

부모의 정도 따르지 못할 다심한 은정이 합숙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려있었다.

이 세상 천만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가장 크나큰 사랑,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알수 없는 친어버이의 정이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곳곳에 봄날의 해빛마냥 따사롭게 비쳐들고있는 것이다.

정녕 그대로는 맞을수 없는 뜻깊은 나날들이였다. 합숙에 어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부르고불러도 진함없을 감격과 기쁨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가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방직공장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합숙터전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조직해주시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하기에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아늑한 침실들과 녀성로동자들을 어서빨리 멋쟁이로 내세우고싶은듯 활짝 문을 열어놓은 정갈한 미용실, 맑은 물 출렁이는 목욕탕과 매끼 푸짐한 식탁이 기다리는 식당을 비롯하여 합숙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이런 심장속웨침이 뜨겁게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로동계급의 이 세상, 인민의 나라를 천만년 빛내이리라!

하루를 백날, 천날로 주름잡아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서 끝없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길이길이 전해가리라!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노래속에 해와 달을 보내는 합숙생처녀들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그 사랑에 보답할 불타는 맹세와 약속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일하며 생활한다.

7. 자연재해속에서 일떠선 선경마을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는 사회주의 조선에 일떠서는 인민의 보금자리들은 결코 평온한 환경에서 계획적으로만 일떠서는것이 아니다.

가장 엄혹한 환경에서 불의에 들이닥친 재난을 가시며 일떠세운 보금자리들이 지도의 곳곳에 새겨져있다.

이 도서의 마지막장에 바로 이에 대하여, 자연재해의 흔적을 가시며 일떠선 인민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 몇가지만 담으려고 한다.

1) 라선땅의 새 전설

주체104(2015)년 8월 조선의 북부지역 라선시에서는 뜻밖에도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게 되였다.

라진지구의 많은 동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선봉지구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철길로반들이 내려앉았으며 빛섬유케블이 절단되여 라선시안의 통신이 두절되고 먹는물공급이 중단되였다.

특히 선봉지구에서는 언제가 터지고 산골짜기들에서 내려오는 물사태에 의하여 시내의 공공건물들과 살림집 수천세대가 60～160㎝침수되거나 떠내려갔으며 수위가 계속 높아져 단층살림집과 다층살림집 1층에서 사는 주민들은 2층이상에 대피하였다. 불과 몇시간동안에 300㎜이상 쏟아진 집중폭우로 하여 대홍수가 밀려와 모든것을 밀어버리였다.

이곳 사람들은 이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온 자연의 재난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1) 피해지역에 일어난 기적

라선시에서 입은 큰물피해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즉시에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2일 라선철도국 당조직과 해당기관들에서 행불된 대상들을 찾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라선시당에서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파괴된 살림집들과 다리, 철길을 비롯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시급히 복구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날인 23일에도 라선시와 선봉지구의 당 및 정권기관, 해당기관들에서 주민들을 시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며 피해정형을 수시로 장악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8월 24일에는 라선시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보고하며 라선시당에서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철길, 전력, 통신을 시급히 복구하는것을 비롯하여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피해복구사업에 로력과 자재, 륜전기재 등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필요한 일군들을 현지에 내보내여 라선시피해정형을 료해하고 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긴급보장할데 대한 지시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지시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25일 21시 라선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라선시피해복구지휘부를 조직하려고 하니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자재, 로력타산을 잘하여 보고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시에서 말아 인차 대책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시에 무엇이 많겠는가고 하시며 자신께서 라선시의 실태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복구정형을 보고받으면서 피해복구를 직접 지휘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 큰물로 인하여 4 00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들의 생활을 빨리 안착시켜야 하겠다고, 큰물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걱정된다고,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살림집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건설하여 그들이 겨울에는 자기 집에서 안착된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27일에도 라선시피해복구를 전당, 전국, 전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한편으로는 전당, 전국가적으로 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물자를 시급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적들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밤을 지새우시는 속에서도 8월 2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올랐던 5일간의 대승리를 총화하기에 앞서 라선시의 큰물피해상황을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맡아 당창건 70돐기념일전으로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인민무력부장을 사령관으로, 총정치국 부국장을 정치위원으로 하는 강력한 라선시피해복구지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 평양과 다른 지방들에서는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는데 라선시인민들은 집과 가장집물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력량을 총집중하여 라선시피해복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내고 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착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피해를 입은 라선시를 단순히 원상복구할 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나는 이번 기회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를 위한 당 및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8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시집행을 위한 라선시피해복구련합지휘부 조직과 관련한 모임이 진행되고 해당한 성원들이 발표되였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제일 먼저 토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단에 무한히 격동된 인민군장병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났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먼저 인민군대를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피줄로 간직하고 사는 인민군장병들은 즉시 조국의 북변 한끝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라선시 인민들을 위한 하나의 거창한 전선을 전개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하루빨리 피해복구공사를 완공하여 충성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일념으로 일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성, 중앙기관, 각도, 라선시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식량과 천, 기름, 내의류 등을 비롯한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였다.

라선시 피해복구장으로 달려나온 각급 부대장병들은 건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일동안에 1 300여세대의 살림집블로크벽체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며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104(2015)년 9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천여리의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피해복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기 위하여 라선땅에 오시였다.

건설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며칠 안되는 사이에 벽체를 다 쌓은것은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거듭거듭 치하하시면서 복구건설을 힘있게 벌려 살림집건설과 보수, 지대정리를 비롯한 복구건설을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 피해복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살림집배치도를 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구역에 구획을 주고 살림집들사이에 도로를 내주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2단계 공사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복구를 벌리고있는 사실을 료해하시면서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이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이 차넘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휘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랑하는 인민들과 군인들을 찾아 머나먼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에까지 찾아오시여 흙먼지날리는 건설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자기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라선시피해복구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당력사에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자랑스럽게 새기는데 적극 기여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그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한 복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살림집건설과 주변정리를 완전히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고 라선땅에 행복의 무릉도원을 펼쳐놓았다.

피해흔적이 가셔지고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라선시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벌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매일이다싶이 와닿았다.

(2) 또다시 찾으신 백학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시의 피해지역이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주체104(2015)년 10월 7일 또다시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조선로동당력사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준비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여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돌보셔야 할 일이 간단치 않게 쌓여있었다.

경사스러운 당창건 70돐 대축전에 초청을 받은 다른 나라의 손님들도 련일 도착하고있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좀처럼 시간을 내실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제일먼저 사랑하는 인민들의 일부터 관심하시며 마음을 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그이께서는 2천여리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또다시 라선땅을 찾아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에 주신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 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지구 등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라선시 피해복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내가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우리 인민군대는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라도 무조건 해낸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한 이 성과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일심단결의 힘, 군민대단결의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맥을 추지 못하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고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내부를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구역앞의 강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하천정리와 지대정리를 잘해야하겠다고, 라선시에서 앞으로 강하천을 잘 정리하여 다시는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며 이번에 백학동지구에 살림집구역을 형성한것처럼 앞으로 다른 살림집구역들도 다 규모있게 정리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가 있은 다음날인 10월 8일 라선시에서는 선봉지구 주민들의 입사모임을 조직하고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전달하였으며 모든 살림집들에 문패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베푸신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기적이 창조되여 라선시는 어제날의 혹심한 큰물피해흔적을 완전히 가시고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선경문화도시로 그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였으며 백학동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경마을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는 라선시 피해복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일심단결의 원천이였다.

그러기에 큰물로 거리들이 물에 잠기고 집들이 떠내려가는것을 보며 이 지역이 다시 일어서자면 몇해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한 외국인기업가는 꿈같은 현실앞에서 흥분하여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의 군대가 미국도 떠는 대단한 군대라고 했는데 오늘 내 눈으로 진짜 보았다. 재해지역에 군대들이 가는것은 많이 보았지만 조선의 인민군대처럼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천지개벽을 일으키는것은 처음 본다. 세상에 이런 군대는 없을것이다.》

이렇듯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전변의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백학동에 일떠선 새 집들

❖ 주인을 기다리는 만복동의 보금자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주체104(2015)년 가을 라선시 선봉구역 만복동에 새 보금자리가 일떠선지도 벌써 여러해가 흘렀다.

정다운 이름처럼 그 나날 이 고장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복을 누려왔으며 그와 더불어 꽃펴난 가지가지 감동깊은 이야기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오늘도 주인을 기다리며 빈집으로 서있는 《홍영원》이란 문패를 단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몇해전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 불행을 당한 사람들속에는 홍영원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큰물에 일가식솔모두를 한꺼번에 잃은 영원이, 몸을 심하게 다쳐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그를 병원으로 후송하며 마을사람들은 피눈물을 삼키였다.

공부도 잘하고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여서 소년단위원장으로 떠받들리우던 영원이, 자기를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로 불러주신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리라 마음다지며 지덕체를 겸비해나가던 꿈많은 소년,

장차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사람들모두가 이런 생각으로 잠을 못이루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따사로운 사랑이 라선땅의 한 평범한 소년을 보살피고있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영원이의 소생을 위해 수십차례의 긴급협의회가 열리였고 대담하고 새로운 치료방안들이 수시로 세워졌으며 수차에 달하는 힘겨운 수술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약들이 그의 몸으로 무수히 흘러들었고 라선시의 의사, 간호원들이 그에게 많은 피와 피부를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뿐이 아니였다.

라선땅의 이름도 모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모가 되고 형님, 누나가 되여 진정을 바치였다.

얼마후에는 영원이의 작은 가슴에 다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사랑이 와닿았다.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나라에서는 새 보금자리를 안겨준것이였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미처 닦을념도 못하는 그에게 한 일군이 살림집리용허가증을 꼭 쥐여주었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 또박또박 써있는 자기 이름을 몇번이고 입속으로 외워보며 영원이는 오래도록 어깨를 들먹이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이 삶의 자양분이 되여, 사회주의대가정에서 한식솔의 정을 나누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이 의지가 되여 그는 수십일만에 대지를 밟고 일어섰다.

그날 제발로 걸어 자기에게 안겨진 새 보금자리에 들어선 그는 이윽토록 말이 없었다.

집안의 제일 밝은 벽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선 그의 눈가에서 또다시 맑은것이 줄줄이 흘러내리였다.

문득 병원침상에서 의료일군들이며 마을사람들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귀전을 울리였다.

백년래 처음 보는 폭우와 큰물로 집과 재산, 혈육까지 잃은 라선시 인민들이 걱정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머나먼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조국의 북변땅을 두차례나 찾으시여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는 이야기.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은정을 세세년년 전해가려는 절절한 마음이 만복동이라는 새 마을이름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그 복받은 주인공들속에 평범한 소년인 그도 있는것이였다.

아직은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모를 나이인 영원이였다. 더우기 혈혈단신인 그에게도 나라에서는 이미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었으니 이런 꿈같은 현실을 어디에서 또 찾아볼수 있으랴.

잠시후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며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입니다.》

지금 영원이는 한없이 소중한 사회주의제도, 어머니조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다.

만복동의 보금자리는 오늘도 병사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있다.

❖ 제일 귀중한 재부

라선땅에서 큰물피해복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피해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당에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가정들에 새 집을 지어준다는것을 알고 보수하면 능히 쓸수 있는 집을 제손으로 헐어버린 문제를 보고받으시였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나라의 어려운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제 욕심을 부리는 개인리기주의적인 처사로 보고 문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것을 문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하다,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이다,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식의 투정질도 달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천만사람모두를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그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에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고 그이의 말씀에 접한 인민들 누구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2) 북부피해전구에서의 인민사수전

주체105(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사이에 조선에 들이닥친 태풍10호의 영향으로 두만강류역에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함경북도의 일부지역이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였다.

두만강물이 위험수위보다 평균 3～4m이상 높아지면서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에서 40여개의 소재지와 마을이 침수되였으며 연사군에서도 저수지물이 넘어나 전반적인 지역이 물에 잠기였다.

큰물이 지난뒤 북부의 일부 피해지역은 말그대로 페허였다.

1만 1 600여동이 완전파괴된것을 비롯하여 총 2만 9 800여동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으며 900여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손상되였다.

피해지역의 도로들에서 180여개소의 구간과 60여개의 다리가 심히 파괴되여 교통이 차단되였으며 100여개소의 철길구간들에 감탕이 쌓이고 로반이 류실되여 렬차운행도 중지되였다.

2만 7 4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 및 매몰되고 150개소의 강하천제방들과 경흥군, 경원군 저수지들의 언제, 방수로가 파괴되였으며 수원지와 상수도망들이 못쓰게 되여 주민들에 대한 먹는물공급이 중지되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는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의 후과는 두달도 채 안되여 가셔지고 인민들은 이미 있던 집보다 더 멋있는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새 생활을 누려가게 되였다.

하다면 그 행복한 새 생활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에 대하여 여기에 담으려고 한다.

(1) 사랑의 복구건설작전

함경북도의 여러 군이 큰물피해를 입던 그 시각,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발이 창공에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 창가의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이 세상 가장 뼈아픈것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루빨리, 한시바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침식도 다 잊으시고 사랑의 복구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북부피해복구를 하루빨리 결속하고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뜻밖에 들이닥친 큰물피해를 빠른 시일안에 가시고 피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꾸릴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큰물피해복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당에 있어서 큰물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을 한시바삐 안착시키고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과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사업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문제, 려명거리건설도 당분간 중지하고 려명거리건설에 동

원된 력량을 큰물피해복구에 돌릴데 대한 문제, 전당과 전체인민이 총동원되여 큰물피해복구를 그해에 무조건 끝낼데 대한 문제, 큰물피해복구를 꿰진 바지깁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망적인 건설계획을 세우고 그에 준하여 설계를 한 다음 진행할데 대한 문제, 큰물피해복구에서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진료소건설을 선행시키되 그가운데서도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를 먼저 건설할데 대한 문제, 철도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수송조직을 잘할데 대한 문제, 철도수송을 잘하는것과 함께 배수송을 배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큰물피해복구를 군민협동작전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큰물피해를 가시고 피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두달 남짓한 기간에 북부피해복구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은 수십차이며 비준해주신 문건은 무려 수백건에 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피해복구를 몸소 진두지휘하시여 력사에 류례없는 인민사수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새로운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내용으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시여 천만군민이 북부피해복구에 총동원, 총궐기해 나서도록 하시였다.

호소문에서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에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였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급파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북부피해복구는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이다.

…

북부피해복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 당풍이다.

…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온 나라 200일전투참전자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북부피해복구사업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하고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라.

…

모든 력량을 살림집건설에 집중하여 올해중에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라. …》

숭고한 인민사랑, 인민중시로 일관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내보내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북도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의 시,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들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세대들을 모두 장악하고 그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보건성과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피해지역에 치료대를 파견하여 주민들속에서 전염성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과 치료대책을 세우며 필요한 의약품들을 긴급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수매량정성, 상업성,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식량과 땔감, 먹는물, 천막, 의복류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결속하기 위한 여러가지 비상대책들과 혁명적조치들도 몸소 취해주시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살림집설계를 비롯하여 피해지역의 대상설계들을 선행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에 새로 일떠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 사업에 설계기관들을 총동원시킬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몸소 설계가가 되시여 조국의 북변땅에 일떠설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의 설계안들을 일일이 다 보아주시며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10월 5일 하루동안에만도 50여건의 건설설계안과 형성안을 보아주신것을 비롯하여 피해복구건설 전기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살림집과 학교, 탁아소, 병원 등 건설설계를 지도해주신 회수는 무려 200여차이고 설계안은 900여건에 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으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와 강재, 유리를 비롯한 물자들을 피해복구장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어느한 시각도 피해지역 인민들을 잊으신적 없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그들에게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에 식료품은 물론 생활필수품, 설비, 자재들에 이르기까지 그 가지수를 이루 헤아릴수 없이 다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피해지역 아이들모두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누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새 집에 바를 문양고운 도배종이까지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누구나 북부전선의 기적적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밑에 북부전야에 력사에 류례없는 인민사수전이 펼쳐지게 되였다.

수십만명의 강력한 건설력량이 렬차와 자동차, 배로 북부전역으로 급파되고 천수백대의 대형화물자동차와 유압식굴착기, 불도젤 등 필요한 기계수단들이 신속히 투입되였다.

돌격대원들은 큰물과 산사태로 형체없이 파괴된 철길과 도로를 따라 기동로를 개척하며 현장에 도착한 즉시 피해복구에 진입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북부피해복구의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맡아나선 인민군군인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새로운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2)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위력

북부피해지역에서 창조된 놀라운 기적적승리는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위력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은 군대와 인민을 믿고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그 고귀한 일심단결이 있어 우리는 참혹한 재난속에서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폐허나 다름없던 두만강기슭의 피해지역에 불과 60여일만에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완공되고 수십개의 새 거리, 새 마을이 형성되여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조국의 북변땅에서 창조된 새로운 기적적승리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이 안아온 위대한 결정체였다.

9월 3일과 10일, 12일, 18일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북부피해복구를 최단기간에 끝내자면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력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복구를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냄으로써 군민대단결, 혼연일체의 거대한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9월 29일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교시하시였는데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 없다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함북도 피해복구를 빨리 결속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함북도 피해지역 인민들이 신심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위력에 의하여 두달동안에 조국의 북변천리에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일떠섰다.

경흥군피해복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1만 1 900여세대의 새 살림집건설과 함께 1만 5 000여세대의 살림집보수와 85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20개의 병원, 진료소건설이 립체적으로 추진하여 두만강연안에 사회주의선경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마을들이 솟아났다.

새 마을들을 일떠세운 기세드높이 북부지역용사들은 190여만㎥의 두만강제방 및 호안성토와 수십㎞의 강하천정리공사에서도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자연의 횡포는 두만강연안과 잇닿은 모든 통로들을 사정없이 끊어버렸지만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 피해지역 인민들은 빠른 시일안에 철길과 도로, 통신선들과 전력망들의 피해후과를 완전히 가시였다.

사품치는 차디찬 강물에도 뛰여들어 나무방틀을 쌓아 철다리를 복구해간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투쟁속에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고무산청년역—무산역사이 철길이 10여일만에 복구되고 20여일만에 파괴된 함북선 전 구간이 개통되여 북부전역에 거세찬 활력을 부어주었다.

피해복구초기에 모든 기동로들을 개통한 도로복구장들에서도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단합된 힘으로 연사—무산, 무산—청진사이 등 여러 구간의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험준한 산발을 헤치며 변전소들과 수백㎞구간의 송전선, 배전선, 철탑, 전주들을 시급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려 북부전선의 전구마다에 당정책결사관철의 숨결이 더욱 높뛰게 하였다.

체신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수십개 농촌리들과 체신분소들의 통신, 방송망을 짧은 기간에 회복하고 32개의 학교, 분교들에 대한 국가콤퓨터망가입을 완성하였다.

당의 부탁, 인민의 기대를 뼈에 새긴 전국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제재봉쇄의 장벽을 산산이 부시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복구에 필요한 세멘트와 전기, 철강재, 통나무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대형짐배들의 선원들과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일군들은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라는 자각을 안고 평시에 비해 하루 평균 4배이상의 화물을 북부전역으로 수송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북부전선으로 달리였다.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조국의 북변땅에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일념으로 수백만점의 생활필수품, 식료품을 생산보장하였다.

여러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770여종에 85만여점의 교육기자재들이 생산되여 큰물피해지역에서 배움의 종소리가 중단없이 울리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을 위하는 친혈육의 심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과 인민군부대들, 항일의 로투사로부터 나어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모두가 피해복구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보내주었다.

북부전선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은 한마을, 한지역이 당한 재난일지라도 온 나라가 일시에 떨쳐나 사랑과 인정으로 사람들모두가 친혈육이 되여 진정을 기울이는 사회의 고상한 륜리를 다시금 실증하였다.

군민대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미풍이 수없이 발휘되여 하나의 의지로 맥동치는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에 불가항력의 힘을 더해주었다.

인민군군인들은 강행군으로 북부전선에 도착한 즉시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온 많은 지원물자를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피해지역주민들이 리용할 가설다리를 만들어주었으며 앞 못보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여 광명을 되찾아준것을 비롯하여 새 거리, 새 마을마다 인민을 위해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펴났다.

피해지역의 인민들은 매일 건설장들에 나가 군인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생활상편의를 돌봐주었으며 피해복구도중 의식을 잃은 군인을 위해 자기의 피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정녕 북부전야에 펼쳐진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화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모습이였다.

북부피해복구의 나날 조선의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시련속에서 더 강해지고 억세여졌으며 당과 인민이 더욱 굳건히 뭉쳤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새로운 기적적승리를 이룩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선다고 하여도 우리 혁명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북부피해복구에로 불러일으키시여 북변땅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새 생활을 안겨주시고 당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새로운 고조기로 전환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북변땅에서 창조된 새로운 영웅신화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3) 2020년의 자연재해복구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광란은 해마다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은 해마다 진행되였다.

그중에서 피해가 제일 심하였던 주체109(2020)년에 대한 이야기만이 지면에 더 담으려고 한다.

이해의 7월과 8월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었다.

큰물과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가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던 9월 3일 또다시 들이닥친 태풍9호에 의하여 북부지대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난관이 조성되였다.

(1) 인민사수전의 숭고한 화폭

련속 들이닥친 태풍과 큰물로 재난이 겹쳐들었던 주체109(2020)년, 이해에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심하게 났다. 도로와 철길이 끊어지고 살림집들과 건물들이 수없이 무너졌다. 피해지역 사람들은 졸지에 집과 재산을 다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이 재난을 예고하시고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해지역에도 제일먼저 달려가시여 피해정형을 알아보시고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과 태풍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취해주시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시였다.

예로부터 자연의 재앙은 막을 힘이 없으니 멀리 피하는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연의 광란을 무서워할것이 아니라 맞받아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자연의 광란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큰물과 태풍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장마철이 시작되고 강수량이 늘어나던 초기에 벌써 큰물과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큰물과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미 8월초 일본에서 발생한 태풍4호때부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큰물과 태풍피해를 막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명피해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파괴된 도로나 무너진 건물은 다시 일떠세우면 되지만 인명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고,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태풍피해방지문제를 중요안건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할데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이 들이닥칠 때면 피해현장에 남먼저 가시여 실태를 료해하시고 현지에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내려보내도록 하시여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태풍8호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휩쓸었을 때였다.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 태풍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단층살림집 730여동과 논 600여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8월초 남먼저 피해현장에 나가시여 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면서 피해지역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파군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군급지도적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피해를 받은 인민들은 군당위원회 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천막에서 일을 보는 새 풍경도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데 대하여 해당부문에 지시하시고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당시)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력량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중앙의 설계력량을 파견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하여 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도 피해복구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할것을 결심하였다고,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력량을 편성하여 긴급이동전개시키며 군내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사업을 선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건설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자재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분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피해복구건설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말에도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도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8호에 의한 피해규모가 예상하였던것보다 적다고, 격정이 많았는데 이만한것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옳바른 위기대응의식을 가지고 태풍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을데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접수한 즉시 예견성있는 안전대책들을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 각 부문별 피해규모를 최소화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가 바로서가고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힘을 집중하여 태풍피해를 빨리 가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농작물피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확고감소를 최소한 줄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황해남도의 농경지와 농작물피해복구사업에 모두 동원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승리의 신심드높이 피해복구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전격적인 투쟁을 벌려 당창건 7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가장 의의깊고 성대히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9월 태풍9호에 의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를 가시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지역현지에서 소집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였으며 이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력량편성문제와 설계, 자재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확정하고 결정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떨쳐나설것을 호소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수도의 당원들이 당창건 75돐 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앞두고 성스러운 성전에서 수도의 당원들답게 한몫 단단히 할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피해복구에로 부르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은 그이의 인민에 대한 열과 정이 얼마나 불같으신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고 어머니당의 모습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주체109(2020)년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제7기 제6

차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하였다.

확대회의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의 상황을 상세히 통보하시면서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새 살림집들의 체모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하며 년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가실수 있는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태풍피해복구투쟁은 조국보위이고 인민보위라고 하시면서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선다 해도 일심단결, 군민일치의 기치를 틀어쥐고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상황을 현지에 직접 나가시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시였을뿐 아니라 피해복구도 현지에 나가시여 직접 진두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10월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과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고장에서 발생한 피해규모와 복구정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에 오니 지난 8월 중순 900㎜이상의 재해성폭우에 의해 도로까지 다 끊어져 직승기를 동원하여 피해상황을 료해하고 1 0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피해라는 처참한 참상을 보고받으며 가슴이 떨리던 때가 어제일처럼 생각난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이날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건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것은 살림집설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한것이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부문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인 문제들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의 중요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보다 개선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이르시면서 인민군대가 우리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문명세계의 높이에 맞게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표준살림집, 문화주택들을 자기 고향집을 꾸리는 정성으로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10월 수도당원사단 성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피해복구를 벌리고있는 함경남도 지역들도 찾아주시였다.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진출한 수도당원사단 성원들은 끊어진 수십리구간의 도로를 복구하

며 피해복구지역으로 진출하여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만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하고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실적이 뒤떨어진 또 다른 지역들에 가서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건설장을 찾으시여 전문건설자들 못지 않게 살림집들을 손색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라고,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맞게 당원들의 겨울용피복과 생활용품,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치료예방대책도 잘 세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살림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주변산들에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전망성있게 잘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에 직접 나가시여 현지를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복구현장에도 나가시여 건설방향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여주시였을뿐만 아니라 피해복구가 끝난 지역에도 나가시여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들에게 만점짜리 문화주택들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였다.

주체109(2020)년 9월 중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을 련상시키는 사회주의농촌본보기마을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 지방건설방침이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에 건설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며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

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동행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농촌건설에서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를 보다 현실성있게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며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본보기마을에 보금자리를 펴게 된 금천군 강북리의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가셔주기 위해 기울인 어머니 당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2) 산악협곡도시로 일떠서는 검덕지구

이해 피해는 검덕지구에서도 크게 났다.

주체109(2020)년 10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림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면서 혹심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달말까지 새 살림집을 안겨줄수 있게 되여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공건물과 개별적주민세대들에서 분숙하며 고생하고있는 리재민들의 식량과 생활필수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장으로 가시는 령길에서 산비탈면에 단층살림집들이 들쑹날쑹 비좁게 들어앉아있는 광경을 보시고 이번에 저런 집들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지 못하는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큰물피해를 받은 천여세대나 다시 건설해놓는것으로써는 정말 량심이 허락치 않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하늘이 낡은 집들을 무너뜨려야만 따라가면서 새 살림집들을 짓고있는데 지방건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얼마전에도 말하였지만 지방건설목표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싹 털어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피해복구건설은 1단계로 정하고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완공하며 2단계로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기간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 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부문에서 검덕지구건설총계획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설계에 앞서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자연재해에도 걱정없고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바로 정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살림집의 외부와 내부형성안을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다시한번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림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검덕지구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는데서 혁명적군인의 본분을 다하자는 맹세로 가슴불태우며 날과 달을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그리하여 검덕지구에 전변의 새 모습이 펼쳐졌다.

단천시 증산리에 1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이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새로 일떠섰다. 룡양광산지구에도 소층살림집들이 솟아났다.

단천시 사오동지구에는 현대적인 다층살림집들과 봉사망, 공원까지 꾸려져 오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은룡덕등판에는 백수십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솟아나고 유치원, 탁아소가 건설되고 단천시 탐사동지구에도 여러동의 소층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섰다.

태풍피해가 가장 혹심했던 대흥청년영웅광산지구에도 10여동의 다층살림집과 수백동의 단층살림집이 일떠서 이 지구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불과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줄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이것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피해복구를 진두에서 지휘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귀중한 성과였다.

하여 검덕지역의 피해주민들도 새 보금자리에서 겨울을 날수 있었다.

검덕지구에서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복구로 끝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주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를 건설할데 대한 은정어린 사랑속에 해마다 수천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솟아올라 새집들이 경사가 계속되고있다.

살림집입사모임들에서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은 주민들은 꿈만같은 현실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위민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광산마을 주민들이 터치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나왔다.

단천시 금골1동 71인민반 간혜영은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검덕로동계급의 가정들에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시고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 집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대흥2동의 특류영예군인 엄영민은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은정에는 비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로동자 최성일은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검덕의 광부들이 영웅으로 떠받들리우며 오늘은 이렇게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광물증산성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덕에 보답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진정 당의 은정속에 검덕의 어딜 가나 웃음꽃이 피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품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랑의 화폭인 것이다.

검덕지구 사람들속에서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말들도 새롭다.

《새 집이 정말 좋지요？》

어떤 광부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처럼 이 말을 몇번이나 곱씹는다. 그러면 기다렸다는듯이 나오는 답례인사도 새롭다.

《좋다마다요. 난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누구나 행복과 기쁨에 설레이니 온 광산마을이 통채로 움씰움씰 춤을 추는것만 같은 검덕지구이다.

검덕사람들은 밝은 미소속에 이야기하다가도 가슴속에 차넘치는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으며 말을 채 잇지 못한다.

잊을수 없는 주체109(2020)년 10월, 나무방틀로 림시교각을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검덕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을 우리 나라의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꾸릴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여 인민군군인들이 달려오고 통이 큰 건설대전이 시작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보금자리가 안겨지게 되겠는지 다는 몰랐다.

건설장 한복판에 설치된, 보기만 해도 눈이 둥그래지지 않을수 없는 희한한 조감도를 보면서 그들은 이 산골에 멋쟁이살림집이 일떠서게 된다는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사실 산악협곡도시, 이 말만 놓고보아도 광부들이 세상에 나서 처음 듣는 말이였던것이다. 그들의 의혹을 가셔주며 광산지구가 몰라보게 변

모되던 어느날 도시에서 시집을 온 한 광부의 안해가 건설에 참가한 애어린 병사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이 집에선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가요?》

그러자 병사는 두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평범한 광부들이 살게 됩니다.》

그 말에 그만 가슴이 꺽 막혀 녀인은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바로 병사의 그 대답이 벌써 현실로 펼쳐지는것이다.

오늘도 광부들은 출근길에 올라서도 꿈만 같아 자꾸만 자기들의 새집을 돌아본다고 한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자기네 집이 더 멋있다고 뽐내고 늙은이들은 또 그들대로 해빛이 비쳐드는 양지바른 아빠트베란다에서 시종 웃음을 거둘줄 모른다.

검덕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

진정 당의 은정속에 검덕의 어딜 가나 웃음꽃이 피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품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랑의 화폭인것이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한해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바라보며 검덕이 천지개벽을 이룩하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앞으로 더 희한한 살림집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광산지구의 래일을 신심과 랑만에 넘쳐 그려보고있다.

검덕지구인민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적인 로고속에 마련된 새 집들에 입사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꽉 들어찬것은 고마움의 인사, 보답의 결의이다.

자연의 대재앙이 다시 덮쳐든대도 억년 끄떡없을 명당자리에 새로 아담하게 일떠세운 살림집들에 인민들이 새 살림을 편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9(2020)년 10월에 다녀가신 집이 있다.

이 집의 안주인인 김영옥녀성은 새 집을 받아안은 행복이 꿈같다고 하면서 흐르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군 한다.

그의 눈앞에는 피해당시의 광경이 떠오르고 희한한 새 보금자리를 받아안은것이 정말 꿈만같았던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란한 분위기가 흘러넘치던 삶의 보금자리가 졸지에 무너져내리고 집세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을의 정경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자장가마냥 정답게 들리군 하던 파도소리마저 아픈 가슴을 허비는듯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한달도 안되여 이처럼 훌륭한 새 집을 받아 안은것이였다.

김영옥녀성은 말하였다.

《지금 군안의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가리켜 리상촌이라고 부른답니다.》

정녕 옳은 말이였다.

이곳이야말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꽃펴난 사회주의리상촌이다.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정깊고 사려깊은 눈빛으로 나라의 천만식솔을 따뜻이 보살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사랑의 요람이다.

김영옥녀성만이 아니였다.

그의 옆집에 사는 나이 지숙한 녀성도 이제는 자기 마을이 온 나라가 다 아는 동네가 되였다고,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당의 은덕을 눈에 흙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고 말하였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그의 이야기에는 온 마을사람들 아니 피해지역 인민들모두가 터치는 심장의 고백이기도 하였다.

리원군 학사대리에도 희한한 새 보금자리들이 일떠섰다.

예로부터 경치가 좋아 선비들이 찾아와 글짓기를 하였다고 해서 학사대로 불리워진 이 고장이 바다가마을의 운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산뜻한 살림집들로 하여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 마을의 14인민반에 사는 강정민동무는 지금도 집으로 들어설 때면 과연 내 집이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에 쉬이 문고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라고 거듭 뇌이였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이 마을에서 수십년을 살고있다는 한 할머니는 당에서 지어준 희한한 집에서 복을 누리게 되였으니 여생에 한이 없다고 하며 눈굽을 훔치는것이였다.

새 집에 입사한 이 마을사람들은 주체109(2020)년 10월 27일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의 한 구절을 여기에 옮긴다.

《…

입사증을 받고 새 집에 들어서니 너무도 희한하여 어느 발부터 옮겨야 할지 어쩔바를 몰랐고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가정용품과 식량, 기초식품까지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는 방안을 돌아보니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농사군, 배군들과 집에서 쉬면서 부양이나 받는 저희들인데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아낌없이 쏟

아부어 이런 훌륭한 새 집을 지어주시였으니 너무나도 아름찬 행복을 받아안기에는 가슴이 터질것 같아 저도모르게 눈물이 쏟아져내려 어른들도 울고 아이들도 울어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고말았습니다.》

그 글줄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의 요람이며 언제나 당중앙뜨락에 혈연의 피줄기를 잇고 사는 인민에게는 오직 행복만이 약속되여있다는 고귀한 철리가 뜨겁게 응축되여있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가 행복의 보금자리에 든 황해남도 금천군 강북리 인민들도 피해를 가신 땅에 희한하게 일떠선 새 집들을 받아안고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였다.

《…

원수님께서 손수 짚어보신 방바닥이며 만시름 놓으시고 앉으셨던 창턱이며 높낮이를 가늠해보신 천정이며 부뚜막이며 가마랑 얼마나 맞춤하고 좋은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듭니다.

몇달전만 하여도 딸을 따라 다른 고장으로 가겠다던 농장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새 보금자리에 이사짐을 다시 풀었고 제대되여온 아들을 장가보낼 생각에 여러칸짜리 살림집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농장원은 세칸짜리 덩실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온 동네 처녀들을 꼽아가며 며느리감을 고르고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면 아버지원수님 다녀가신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가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개학날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꾸밈없는 진정이 담아 편지를 쓰는 강북리 인민들의 눈앞에 선히 어려왔다.

주체109(2020)년 9월 중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난을 당한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천사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시여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같은 사회주의농촌본보기마을을 바라보시며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갈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시기 당면과업과 전망목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연구와 대책이 절박하다고, 우리 당대회가 이 중대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이날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자욱은 피해복구만이 아닌 농촌건설의 원대한 구상,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뜻깊은 걸음이였다.

인민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이 끝이 없다. 아직도 할 이야기는 많다. 천도개벽을 노래하는 섬마을들과 새로 일떠서군 하는 대규모온실과 발전소들, 공장들과 농어촌들에 생산건물보다 먼저 일떠서군 하는 인민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책에 다 담지 못하였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맺 는 말

세월은 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것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보금자리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더더욱 높아질것이다.

인민의 요구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요구를 언제나 정책에 담고 그 해결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과 당을 령도하시며 인민의 락원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보금자리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것이다.

누구나 사회주의조선에 와보시라.

그러면 이 글에서는 볼수 없었던 더 많은것을 보게 될것이며 이 글에 다 담지 못한 인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것에 담겨진 한가지만은 같을것이다.

그 어떤 훌륭한 집이 일떠서도 그 보금자리의 주인들은 다 로동자, 농민, 군인, 교원, 과학자, 연구사를 비롯한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말할것이다. 우리의 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어주신 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라고.

그렇다. 조선인민을 모든 광풍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따뜻한 보금자리, 고마운 그 집은 바로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다.